信 心과 精誠으로 靑銅文化의 脈을 이어가는 匠人들의 作品
불상 · 탱화 · 범종 전시관
전화:02-735-1045/팩스:02-735-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영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2월 1일 수요일 (주간)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말의 분노를 막고
말을 삼가라.
〈법구경〉

법회 안내

성륜사 (02)336-2052
일반법회 매주 토 오전8시30분
청기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 오전11시, 오후2시

영락사 (02)889-7272
청기법회 셋째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둘째, 넷째 일 낮12시
명화회법회 매월 1일 낮12시
자도회법회 셋째 일 오후4시
신도회법회 매주 토 오전8시

대명사금강선원(02)553-4856
청년법회 화 오후6시30분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참회기도 매월 7일(음)
미타기도 매월 15일(음)
조상천도재일 매월 18일(음)

용천사 (02)642-2070
칠성재일 매월 7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북한불교학생법회 일 오전11시

인천 연산정사(032)873-1059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4시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제주한마음선원(064)21-4662
어린이법회 일 오전9시30분
중·고등부법회 일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수 오후7시
거사림법회 매월 첫째, 셋째 목 오후7시
요전법회 수 오전11시30분
일반신도법회 매월 둘째, 넷째 일 오전10시30분

대전 자광사 (042)283-6421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6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오늘의 불자 달라져야 한다"

한국불교재가회의 12일 창립, 지도급인사 결사

불교 · 사회발전 논의 … 대승적 시민운동 전개

'오늘의 불자, 달라져야 한다'는 자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각 분야의 지도급 재가불자들이 '새불교 운동'을 주창하고 나섰다.

'한국불교재가회의' 창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영)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 다보빌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중흥과 대 사회발전을 위해 교계 여론을 수렴하고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결사모임 '재가회의'를 창립한다고 밝혔다.

재가회의는 불교계 원로재가자를 비롯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 2백여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2일 12시 신라호텔 다이나스티룸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정식 출범한다.

이번에 창립되는 재가회의에는 서돈각(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 이기영(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김종서(한국교육개발원 이사장), 고은(현대불교신문 논설고문), 이윤근박사(금정하원 이사)가 공동대표로 참여하는등 교계 원로 중진인사들이 대거 동참하고 있어 불자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재가 長老들이 일어섰다 한국불교의 지도급인사들이 신대승불교운동을 전개키로 뜻을 모았다. 이에 참석한 재가 원로들은 이운동의 견인차가 될 것을 천명했다. 공동대표 5인은 지난 달 2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고은, 조홍식, 추진위원장 이기영, 서돈각, 김종서박사. 〈사진=박재완 기자〉

또한 재가회의는 종단 및 정치권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불교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외호, 협력, 견의, 비판의 역할을 담당하여 대승적 시민운동을 전개하는등 불교와 사회전반에 걸쳐 신 대승불교운동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운동은 불교계와 사회가 제모습을 잃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불교계의 지성인들이 모여 해결 방안을 찾고 실천할 것을 다짐해 주목을 받고 있다.

'새불교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재가회의의 주요사업으로는 △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대중교육 △불교의 비전을 위한 분과별 연구토론 △대 사회사업 등이 있으며 각 분야에서 불교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창립과 함께 회원들은 문화 예술, 포교 신행, 종교 교단, 언론 출판, 교육 학술, 정치 통일, 경제 과학, 환경 윤리, 사회 복지, 국제 평화 등 10개 분과로 나뉘어 독자적인 연구활동을 벌여갈 예정이다.

재가회의는 신행활동 10년이상의 덕망과 의식, 전문성있는 교계 지도급인사들이 추진위의 추대로 구성된다.

한편 재가회의에는 언론인으로 김해호(불교방송사장) 공종원(조선일보논설위원)씨, 학계에 신동준(한양대) 이각범(서울대) 권기종(동국대)교수, 예술 문화인으로 남지심(소설가) 박범훈(중앙관현악단단장)씨, 법조계 김홍근(변호사) 박홍우(헌법연구원)판사, 신행 포교분야에 한정섭(한국불교교화원 이사장)법사 등 현재 1백50여명이 가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신문이 오는 2월부터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법공양 면을 신설합니다.

신설 법공양 면은 본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 16면)과는 별도로,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재량 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지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현대불교는 1차로 오는 2월 중에 월 2회, 매회 4면 정도를 시험제작하고 교계의 호응을 보아 가능한 한 5월부터 매주 4면씩을, 10월부터는 매주 8면까지를 법공양 면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법 공양면 신설

각 종단·사찰 대상 제작 실비로
독자에겐 사실상 증면 효과

법공양 면은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제작을 원하는 부수(部數)의 실제 인쇄비 및 우송료로 한정됩니다.

현대불교가 일반 제작비 부담증가를 무릅쓰고 법공양 면을 신설하는 뜻은 주 16면 발행만으로는 각 사찰마다 펼쳐지는 설법을 지상중계하는데 한계가 있고 현재 8~9면에 게재 중인 「지상법석」을 확대해 달라는 독자의 요구를 고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공양 면을 이용하시려면 본사 소정양식에 따라 미리 계약을 맺되 이용 회수 5회 이상, 이용 면수 2개면 이내 이어야 합니다. 각 종단·사찰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조계종·선학원 첫 만남

대책특위, 5개항의 정관 변경 요구

지난해 말 불차상의 문제로 접촉이 무산됐던 조계종 선학원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법등, 약칭 '조계종 특위')와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정일)이 지난달 24일 상견례를 겸한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조계종 특위'는 선학원에 정관 일부를 변경해 줄것을 요구 △제 1조 명칭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 3조 목적에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를 봉대하고' △제 6조 임원선출에 '대한불교 조계종 재적승려중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추천하고' △제 32조 잔여재산의 귀속조항에 법인해산후 잔여재산은 '대한불교 조계종에 귀속한다' △제 33조 정관개정에 있어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등을 삽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은 2월중 열리는 재단이사회에서 조계종의 요구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말해 공식대응을 이사회 후로 넘겼다.

동국대 총장에 송석구교수

25일 이사회서 만장일치 선임

동국대 재단이사회(이사장 녹원스님)는 지난달 25일 타워호텔에서 제30회 임시이사회를 갖고 제13대 총장에 송석구교수(55, 철학과)를 선임했다. 〈인터뷰 7면〉

이사장 녹원스님을 비롯 박과·정대·현성스님 서돈각 황명수씨 등 이사 11명과 감법장 전상지 이기화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각 이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총장선임에 들어가 송석구교수를 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의 제 13대 총장 선임은 지난 달 15일 교수·직원회의 선거를 통해 총장추천 후보로 선출된 송석구교수와 조희영교수에 대한 선임유보 10일만에 이루어졌다.

설날연휴 관계로 2월 8일자 휴간합니다

지상법석 직지사 조실 관응스님 8·9면
용주사에 대규모 孝교육원 설립 15면

목어

서울 종각에서 조계사로 향하는 중간지점(현대불교신문사 입구) 불교조각전문점 앞에 우람한 석조 금강역사(金剛力士)가 서 있다. 그 옆에 포대화상도 같이 서 있다.

행인들은 가끔, 눈을 부릅뜨고 한손에 칼을 든 이 금강역사상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은 바짝 다가가서 만져 보기도 한다.

"야 이거 뭐냐."
"무섭다, 그렇지."
"재미있게 생겼잖아."

금강역사나 사천왕상 등 불교의 신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들은 이처럼 관심을 보이지만, 절에 자주 다녀 신장과 친숙한 불자들은 오히려 무심히 그 앞을 지나친다. 만약 이 신장상이 조계사 근처가 아닌 일반거리나 빌딩 앞에 서 있었다면 불자들은 사찰 밖에서 불교성물을 만난 반가움을 금치 못했으리라.

불교미술이 절에서 예배대상으로만 기능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그 몫을 해야한다는 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오고 있다. 가정·직장·거리에서 감상용 불교미술과 만날 수 있을 때 미술을 통한 문화포교는 가능해진다.

거리의 금강역사

용해는 미술의 해다. 가톨릭을 수호하고 중생의 선악을 은밀히 살피는 신장, 비해보살의 화현으로 알려진 포대화상처럼 불교를 상징하는 조각이나 공예작품이 환경조형물로 등장한다면 어떨까. 세인들은 자연스럽게 불교전통 또는 현대기법의 불교조형물과 친숙해지고 그러다보면 은연중에 불교의 가르침과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불법의 향기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이 미술의 해인 올해 닦아지길 기대해 본다.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95년도에 새롭게 선보이는 삼성생명의 신상품 –
어떤것을 선택해도 확실히 만족하십니다



확실히 커진만큼 확실히 만족합니다.
삼성 그린행복연금보험
- 지급율이 큰폭으로 개선된 고액의 연금+장수축하금+배당금까지
- 업계 최초로 장수우대형(장수할수록 많아지는 연금을 종신지급)과 조기지급형(일정기간동안 고액의 생활자금을 지급) 중 선택 가능
- 각종 세제혜택 제공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차익 비과세)
- 노후 80세까지 암발병 및 입원치료비 보장(특약)
- 개인형 및 부부형 선택 가능



진단에서 입원, 요양, 그리고 생활보장까지–
삼성 흠닥터보험
- 배당금 지급으로 저축가능까지 겸비
- 암진단급여금+생활자금+입원비+수술비+통원비+요양비+유족보상금
-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
- 다양한 보험기간(10,20년형/55,60,65,80세형)
- 배우자 및 자녀까지 동시가입 가능

가족사랑 이웃사랑
SAMSUNG 삼성생명

사 설

신도조직 활성화 승가발전의 초석

열반경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계율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대승경전의 핵심이다. 정법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불교의 이상인 불국정토의 건설이나 개인적인 안심입명이 정법을 지키는데서 가능하다고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법을 지키는 것은 불교적 인생관에 젖어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불교를 신앙한다는 것 자체가 한갓 지적인 유희에 그치고 말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하기 십상이다.

새삼스럽게 이러한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은 조계종의 전국신도회 구성을 놓고 조계종 총무원, 기존의 전국신도회, 재가불자연합 등이 새로운 신도조직을 탄생시키기 위한 조정국면에 있기 때문이다.

개혁종단으로 불리는 조계종 집행부는 깨달음의 사회화란 대전제 아래 조계종의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도법을 제정하고 이 법안에 의거한 전국신도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조계종 산하의 사찰에 재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신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신도는 마땅히 신도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단법인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엄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계종 집행부는 기존의 전국신도회가 백의종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전국신도회는 기득권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조계종 전국신도회는 1955년에 창립되어 재신도 불교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순수한 종교운동이나 승가의 외호단체가 아니라 정치운동에 매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불교운동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으며, 지방조직과 중앙본부의 일체감이 형성되지 못했다. 총무원에 결방살이 하면서도 몇몇 인사가 중심이 되어 이름만 내세운 전국조직으로 존재했었다. 그동안 이러한 (사)전국신도회의 과행적 운영에 뜻있는 인사들의 우려와 고언이 수차례 있었다. 특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특정정당의 정치자금 세탁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그 진위를 떠나 불교인들의 자부심에 먹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개혁 종단에서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이 개혁의 과정에서 재가불자연합을 태동시켰다.

그러나 명칭은 여하튼 재가불교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끌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사부대중은 냉정하게 과거의 공과를 반성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대동단결하자고 촉구한다. 종교의 생명이 도덕성과 투명성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해야 하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전국신도회는 불교운동의 첨병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사부대중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정법호지라는 본질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출가와 재가가 각자의 역할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력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관련단체는 화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계종 전국신도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처럼 새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는 불교계 내외의 현실을 북돋아 주고 뜻 깊은 초파일을 맞이하여 민족의 항구적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당사자들의 화합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 건전한 신도조직의 활성화는 승가발전의 초석임을 명심해야 한다.

열린마당 신도조직개편



지명스님

신도법 근거 충분한 협의후 추진

최근 재가신도단체 일각에서 전국적 신도조직 결성에 관한 견해 및 계획 발표가 무성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자율적인 신도조직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각계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준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다.

중앙신도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구성돼 오는 5월 부처님 오신날 행사를 여법하게 치를 수 있도록 조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중앙신도회는 신도법에 근거해 구성돼야 하며 사찰신도회→교구신도회→중앙신도회로 조직돼야 한다. 신도연합 단체가 참여해야 할것이다. 신도법상의 요건을 갖춘 신도를 구성원으로 하는 신도회와 신도 연합단체에 의해 중앙신도회는 구성될 것이며 재적사찰을 가지지 않은 신도가 중앙신도회에 참여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무원은 신도법의 규정과 취지를 충분히 살려 현재로서는 교구신도회가 완전하게 구성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교구신도회가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성되고 난 후에 중앙신도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총무원은 중앙신도회가 명실상부한 신도의 대표단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신도연합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조계종 기획실장〉



김재일법사

총무원이 간섭·통제하면 발전 못해

한국불교의 신도회를 대표했던 지난 전국 신도회는 지금껏 많은 문제점을 보여 주었으며 사찰신도회 역시 자주성이 없는 현실이다. 이런 지난날 한국불교의 모습은 재가자나 출가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바른 한국불교 신도회를 건설하려면 첫째 새로운 신도조직이어야 한국불교가 발전 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 둘째 새 신도회는 자주성이 결여되면 발전하지 못한다. 총무원에서 새 신도회를 건설하는데 신도회법, 신도회 조직, 신도회 활동 등 전반에 걸쳐 규제하고 강하게 간섭하면 근본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재가자도 부처님법을 활발하게 호흡하면서 생활 속에 수행수도하고 싶어함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새 중앙신도회 구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적 신도회는 기초 신도회인 각 사찰신도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도단위 및 교구본사 신도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중앙신도회를 구성해야 될것이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신도회를 조직하고 정비하는 일은, 지금까지 모습대로 총무원이 전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한다면 바람직한 모습으로 탄생되지 못한다. 몇년이고 장기간이 걸릴지 모르며 또한 양질의 새 신도회는 탄생시키지도 못할 지도 모른다.

오늘의 한국불교 중앙신도회는 명실상부하게 위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재가불자연합, 전국신도회, 중앙직능기구인 대한불교청년회 등이 협력하여 중앙신도회를 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일을 완성하는데는 대승적 차원으로 재가출가가 더욱 힘을 모아 새 중앙신도회를 탄생시켜야 한다.

〈재가연합 상임집행위원장〉



권지홍법사

'전신회 재건위' 구성 새출발하자

대한불교 전국신도회는 1950년대 중반 조계종 창종과 함께 출발했다. 당시 재가불자들은 한국불교 본모습을 복원해야 한다는 열망으로 정화불사를 측면에서 지원하기위해 불교정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이 오늘의 전국신도회다.

이후 전신회는 40여년을 불교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근래에 들어 공중분해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원인의 하나는 조계종 종헌은 승속 사부중으로 구성한다고 명문화시켰지만 창종당시 산파역을 했던 신도회에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 전신회도 생산적인 활동이나 자생력있는 자주적인 활로를 개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신회 기획업무를 수임했던 경험으로 전신회 활성화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피력한다면 한마디로 '백지위어 다시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날 전신회 중앙기구에 참여했던 사람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서야 한다. 그리고 일선에서 실질적인 조직을 관리해온 시 도 군 지회장 10명 내외로 '전신회 재건위원회'를 구성, 법인정관에 명시된 당연직 총재(총무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한다. 조계종산하에 있으면서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종단과 신도회가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조계종 전국신도회 기획실장〉

현대만평

박 구 원



"저 슬픔 우리가 알지요"

시 론

일본 지진 참사 有感



정 병 조
〈동국대 교수〉

일본 관서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젖어든다. 우리나라는 과연 무풍지대일수 있을까. 만약 참혹한 천재지변이 있을 때 저들처럼 질서의식을 지닐수 있을까. 물론 대부분의 의구심은 부정적 결론으로 끝나버리지만, 우리 또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980년을 전후하여 해마다 이른바 오월위기설이라는 것이 있었던 적이 있다. 북한에서 밀고 내려 오느니, 학생들이 데모를 심하게 한다느니 하는 그럴듯한 루머들이 장안에 떠돌곤 하였다. 해마다 겪던 일이어서 무관심하려 애쓰지만, 영 속이 켕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시각에 일본인들은 한반도 통일 위기론이라는 논쟁에 휩싸여 있었다. 한반도가 통일된 후의 파장이 저들 열도에 미칠 영향에 관한 논의들이었다. 대부분 일본인들은 한반도 통일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만약 북측의 무력통일이 실현된다면, 일본은 최전선의 군사방어를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군비경쟁과 함께 전쟁의 위협이 가중되게 된다. 지금도 일본인들은 가상의 적국을 러시아와 북한으로 여기고 있다. 한편 남한이 주도하는 흡수통일이 된다면 경제위기가 닥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거품경제라고 비웃는 남한의 국력이 북한 주민들을 전부 먹여 살릴수는 없다는 관단이다. 그 경제적 무질서의 파장이 일본에까지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우리로서는 섭섭하기도 하고, 또 예비심 강한 저들에 대한 경계심도 생길 수 밖에 없다.

인과관계로 얽힌 세계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정반대의 경우를 상상하게 된다. 즉 일본열도가 천재지변에 의해 함몰할 경우, 쓸지은 피난민들이 당을 곳은 바로 우리의 동해안지역이다. 즉 그들 일본난민들을 우리가 떠맡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공동적 운명의 테두리안에 놓이게 되었다. 눈부신 통신교통수단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로 묶어 버렸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곧바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연기적(緣起的) 상관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세계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는 눈에 띄지 않는 인과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아무도 고립된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갈 수는 없다.

따라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소아적(小我的) 자세는 서로를 어렵게 만든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대지진 사태이후 일본인들이 외국의 원조를 극구 사양하는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고까운 자존심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걸핏하면 남에게 손을 벌리는 비굴한 자세도 문제지만, 신세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치기(稚氣)또한 문제이다. 아마 그래서 부처님이 중도를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몇번을 곱씹어 봐도 선진적 질서의식은 부러운 단면이다. 인간이 극한 상황속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고도의 훈련으로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불교사상이 삶의 원리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훈련받은 결과가 이제 하나의 일관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은 반성의 여지가 많다. 일본의 학교교육은 불교사상의 전과가 그 뿌리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꽃이 비록 아름답지만 언젠가는 져야 하고' 하는 사행시(四行詩)가 있다. 말할 나위도 없이 불교적 무상(無常)을 용해시킨 시구를 반복 강조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 국어교과서에서는 '바둑아 놀러가지'라고 되어 있다.

일본의 목욕탕에는 예외없이 '정수(淨水)보살'이라는 표현이 있다. 즉, 물 자체를 우리들에게 고맙게 인식시키려는 배려가 깔려 있다. 물 하나에도 생명이 깃든다는 의식이 스며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래를 뱉지 마시오.' '물을 아껴 씁시다' 따위의 지시적 표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일본인들의 몸에 배인 검약성과 정직성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 이와같은 불교적 세계관이 그들 삶의 지배적 원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 긍정성을 애써 외면하고, 저질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오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인간이 사는데는 어디에나 '후악한' 단면은 있게 마련이다. 이것을 침소봉대하려는 일 보다는 긍정성을 인식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들은 불교를 생활속에 자리매김하였고, 우리는 불교를 골동품으로 치부해 버리고 말았다. 이제부터라도 그 불교적 삶의 원리가 이 시대의 지배적 경향으로 전개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불자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하고, 사회의 불교에 대한 시각이 보다 객관적이어야 한다. 불교의 세계화는 바로 이 두가지 목표의 달성이라고 확신한다. 종교는 결코 이 시대를 떠나 혼자만의 삶을 누릴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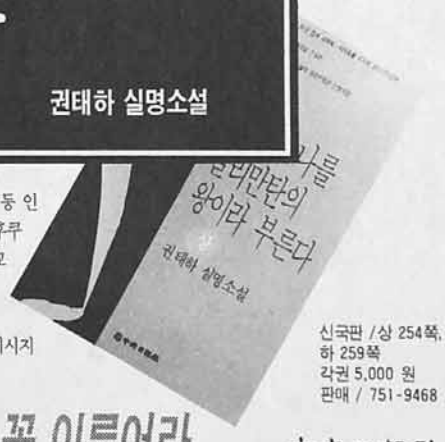
고통받는 삶의 현장에 있는 불교, 관념적 허구를 무너뜨리는 실천의지가 바로 불교적 지향점이어야 한다. 어차피 세계는 중생들의 집합이며 중생들이 있는 한 불교는 존재당위가 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國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근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횃불을 밝히고 「產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통 큰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건습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시·사토·미키·후쿠다·스즈키·다나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쁜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신국판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中央日報社

생명 현상

성철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신 것은 자연상호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대립을 벗어나 자기부정을 거친 인식의 지평뒤에서 모순과 대립을 넘어서는 심오한 통찰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구두선처럼 외웠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말은 우주와 인생에 대한 심오한 직관을 함축하고 있다.

이 말씀이 사회적으로도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마도, 이 말씀이 모든 사회현상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의미를 통해 혼돈에서 질서에의 생명현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의 진정한 의미속에는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자기부정의 원리가 있어야 하고,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속에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자기부정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무한으로 열린 생명현상으로의 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진정한 살아있는 통일의 원리도 숨어있다. 민족분단의 모순은 자기부정과 자기개방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천민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모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모순 역시 상호 대결구조가 아닌, 있는 자는 있지 않은 자이며, 없는 자도 없지 않은 자라는 성찰을 통해 생태학적 다양성이 '물생명현상'의 극복과 관계되듯이, 다양하게 극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자연의 착취에 의존하여 물질만의 진보를 추구하며,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현대문명에 의한 지구의 파괴이다.

이제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인류는 자연의 파괴로 드러난 자신의 추악한 욕망앞에 깊은 고뇌로서 드러워지게 되었다. 자연은 더 이상 자연이 아니라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되었으며, 땅은 더 이상 땅이 아니라 우리의 척박하고 불모화된 마음의 밭이 되었고, 물은 더이상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오염된 지혜, 불은 더이상 불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의 번뇌가 되었다.

바람은 더이상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이 광풍이 되었으며, 생명은 더이상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상실해가는 생명의 자유가 되었다.

그러나 뒤늦게 나마 우리는 현대문명에서의 자연의 고뇌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괴로움을 보는 자는 열반을 본다"는 원리에 따라, 자연을 그 있는 그대로의 열반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인간과 자연의 괴로움은 무엇이고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괴로움의 소멸은 무엇이며, 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은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성찰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성찰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앞에서 무엇보다도 고뇌하는 상태로서 등장하는 땅, 물, 불, 바람과 생명에 대한 참다운 종교로서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미해보면서, 자본주의적 청색운동과 사회주의적 적색운동의 모순을 지양하는 생태주의적 녹색운동과의 연대를 모색해보는 것일 것이다.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③

"상호 모순 극복 생태주의적 녹색운동 펴야"

신행수첩

장병의 손에 염주·불서를 신앙물 보내주기 캠페인

꾹눌러쓴 철모에 국토방위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생활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발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얼마나 뜻깊은 일일까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는 2월부터 12월까지 팔도의 젊은이들이 모인 군에 염주, 불서, 호신불등 '신앙물 보내주기 캠페인'을 벌여 뜻있는 불자들의 마음을 흔흔하게 해주고 있다.

장병불자들의 대다수가 군에 와서 불교를 처음 접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둘 때 군장병의 포교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불자들의 정성어린 마음이 조금씩 모인다면 군장병들의 독경소리는 더욱 커져 삼천대천세계에 울려퍼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추운겨울 염주하나 불서한권의 보시를 통해 장병불자들과 이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02)748-1728

사경통해 지혜배운다 청년여래회 「심경」강의

불교에 처음 입문한 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경전을 들라면 아마 반야심경일 것이다. 이처럼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짧은 경구로 함축되어 있어 많은 불자들에게 친근하게 염송되고 있다. 그러나 눈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뜻을 새겨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수행일 것이다.

청년여래회(회장 박진우)는 평상시 늘 접하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알지못했던 반야심경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오는 7일 저녁 7시반 여래회법당에서 생활수행법문을 열고 반야심경 강의를 갖는다.

민족과 사회문제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불법수행에 한치의 게으름도 없는 여래회 청년불자들은 백남석 법사의 강의에 이어 반야심경 사경을 하게 된다.

한자 한자에 마음을 쏟아 신앙의 원력을 높이며 전법의 공덕을 쌓는 수행을 펼치는 것이다.

그대로가 염불이요 기도요 참선인 사경, 그 자체가 생활이요 신앙임을 느끼게 될 생활법문에서 많은 청년불자들은 반야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02) 747-1902

산사의 식생활 전수 전통사찰음식 강좌

불교와 인체의 생리적 측면을 고려한 승가의 깔끔하고도 감칠맛 나는 공양물들.

종지를 따르자면 제한하는 것도, 절제해야 할 음식도 많다는데 스님은 무엇을 먹고 살까?

그 많은 음식들을 다 절제하고 영양보충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 수행의 과정이라고 여기기도 하겠지만 재가자들이 한번쯤 풀어봄직한 생각이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에서는 그런 의문의 실마리를 풀어줄 창구를 매월 1·15일 2차례 열어 놓고 있다. 수강생들은 본 연구소 강당에서 오전 11시면 어김없이 문화강좌를 접하게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발우공양실습및 사찰음식조리실습, 사찰김치등 우리나라 전통사찰음식을 전수받아 스님들과 '승풍'을 공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02)245-0904

흥겨운 프로세계로 안내 불교레크레이션 교육

프로는 아름답다!

어떤 분야에서든 프로가 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창주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흥겹고 유익한 레크레이션을 통해 전하는 일도 진짜 프로 불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상의 나래를 펴고 프로의 세계 전문 불교레크레이션 지도자에 도전 할 기회가 마련됐다. 불교레크레이션포교회(회장 법현)는 제4기 전문지도자 과정을 모집한다. 불교레크레이션2급 지도자 과정인 이번교육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서울 돈암동포교원에서 실시된다.

불교레크레이션론에서부터 불교교리, 찬불가, 레벤트(레크레이션과 이벤트), 리더쉽과 모임의 진행, 캠프, 게임 등등 다양하고 알찬 강의로 미래의 프로 불교레크레이션 지도자를 양성하게 될 이번교육에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02)935-4967

화랑의 발자취를 찾아 바라밀 어린이 국토기행

초롱초롱하고 해맑은 눈동자를 지닌 어린 불자들이 내일의 문화창달을 위한 파란 꿈을 펼치고자 신라 화랑의 발자취를 찾아 경주로 떠난다.

골굴사 선무도 서울포교원 산하 바라밀 어린이 기행단(단장 강찬선)은 봄방학을 맞이해 오는 21~24일 3박4일간 「화랑의 얼을 찾아 떠나는 경주 역사유적 캠프」를 마련했다.

기행단은 경주 남산 등 성지 탐방과 우리문화의 현장답사를 통해 어린 불자들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불심을 키우는 한편, 자연보호활동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하게 할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국민학교 2학년 이상 중·고생이며, 답사 예정지는 불국사, 첨성대, 경주박물관 등 경주일원이다. (02)3442-3715



◇한국전통사찰 음식문화연구소는 매월 두차례 사찰음식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생명 살릴 자비손길 기다립니다

두살난 심장병 어린이·신부전증 보살 사경헤매



◇임태현군

설날을 앞두고 13개월된 어린생명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무서운 병을 갖고서 태어난 임태현군(2세).

엄마의 가출로 생활능력이 없는 할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결국은 합병증까지 동반하고 말았다.

다행히 불자들의 자비봉사모임인 광명회(회장 김기원)의 도움으로 지난 16일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새생명을 갖기까지에는 몇차례 넘겨야 할 고비가 많다.

경상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천진스럽게 놀고 있는 태현이의 눈이 맑고 초롱해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런지. (0591)751-3384 농협 803-01-344384(광명회)

자비의 손길을 보내야 할 불자가 또 있다. 경북 상주 호암어린이집 보모 김미숙(23세 보련화) 불자.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기능이 15%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소외받은 어린자녀들을 돌보던 보련화보살이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 다시 아이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야 하겠다. 특히 장기기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 (0582) 541-7863



◇책방 여시아문에 마련된 '맑고 향기롭게' 코너의 무공해 세제가 주부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맑고 향기롭게 삽시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결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맑은물을 지키겠다는 불자들의 의지가 잔잔히 번지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사 1층 책방 '여시아문'이 지난달부터 마련한 무공해 비누·세제를 판매하는 '맑고 향기롭게' 코너가 벌써부터 주부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현재 선보이고 있는 무공해 상품은 빨래비누(물사랑), 주방용 세제(천연샘), 세탁세제(맑은샘)등 11종류. 모두 무공해 제품으로 일반 합성세제와는 달리 하천오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뿐더러 세척력이 뛰어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맑은 물 지켜야죠"

책방 여시아문

무공해세제 판매·스티커 무료 배포

'맑고 향기롭게' 코너에는 이웃의 권유로 제품을 사러 온 주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무공해 세제를 손에 들고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써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구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환경문제가 나아질 수만 있다면 정말 뜻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 불자들이 노력해 후손들에게 건강한 물 건강한 땅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한 주부가 세탁세제 10개를 다량으로 구입해 서점문을 나서는 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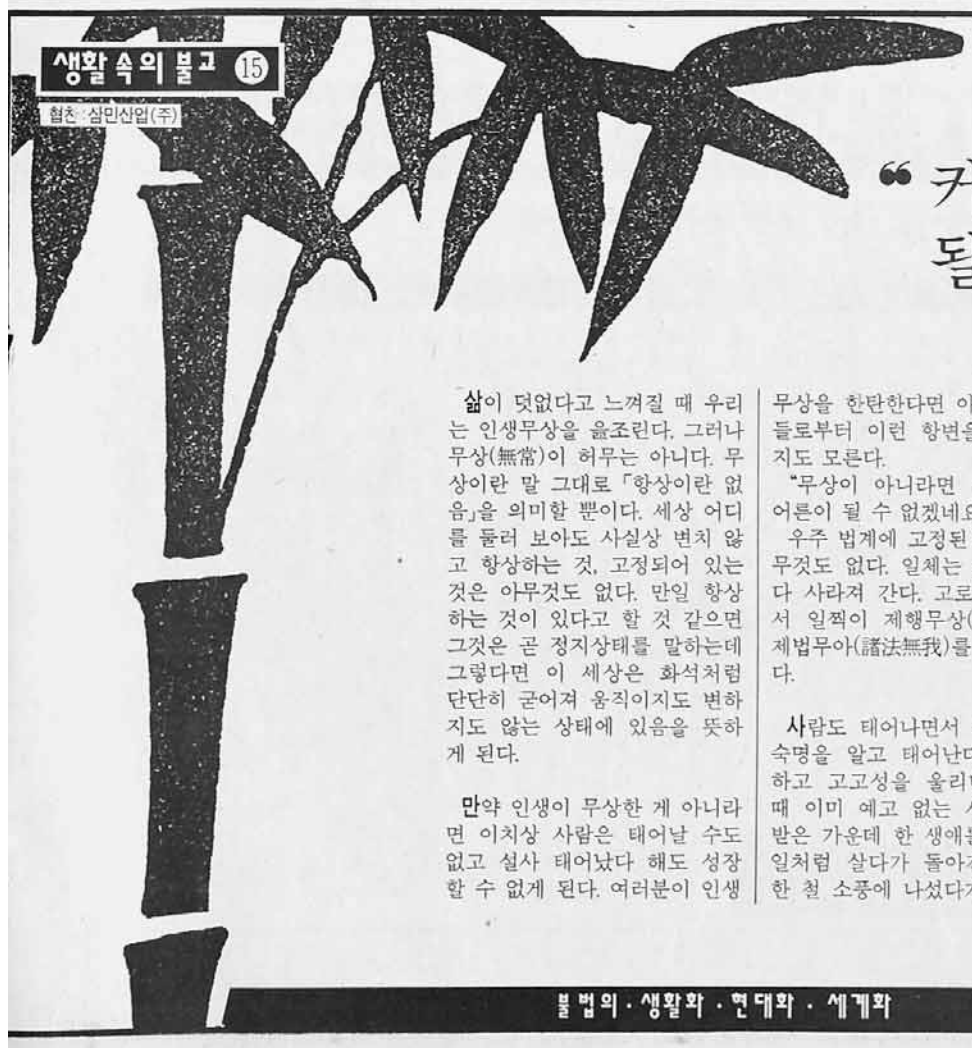
며칠전부터 '여시아문'에서 무공해' 비누와 주방용 세제를 구입해 쓰고 있다는 주보문심 보살(51,방학동)은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내 스스로가 무공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다소나마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기쁘다"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요가 많지 않은 탓에 소량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일반제품과 비슷하거나 다소 비싼 것이 흠이지만 맑은 물 찾기 실천운동이 널리 퍼져 무공해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지금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공해 세제는 폐식용유에 가성소다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만들 수 있어 각 가정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천보호는 물론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시아문에서 무료 보급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또한 일반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시아문 김경숙 대리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훨씬 높아 이런 관심이 지속되는한 우리의 땅과 물은 언제나 건강할 것"이라며 마침 무공해 세제를 사러 온 한 주부에게 다가갔다. 무공해세제 구입문의 (02)737-0695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을 법공양 합시다
문의: (02)737-8881

생활속의 불교 ⑮
협찬 삼민산업(주)



"커서 어른이 될 수 없겠네요!"

삶이 덧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인생무상을 읊조린다. 그러나 무상(無常)이 허무는 아니다. 무상이란 말 그대로 「항상이란 없음」을 의미할 뿐이다. 세상 어디를 둘러 보아도 사실상 변치 않고 항상하는 것,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일 항상하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곧 정지상태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화석처럼 단단히 굳어져 움직이지도 변하지도 않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게 된다.

만약 인생이 무상한 게 아니라면 이치상 사람은 태어날 수도 없고 설사 태어났다 해도 성장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이 인생무상을 한탄한다면 아마도 자녀들로부터 이런 항변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무상이 아니라면 저는 커서 어른이 될 수 없겠네요!"

우주 법계에 고정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일체는 나서 머물다 사라져 간다. 고로 부처님께서 일찍이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를 설파하셨다.

사람도 태어나면서 이미 죽을 숙명을 알고 태어난다. "응아!" 하고 고고성을 울리며 나왔을 때 이미 예고 없는 사형선고를 받은 가운데 한 생애를 꿈 속의 일처럼 살다가 돌아간다. 마치 한 철 소풍에 나섰다가 가는 것처럼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인지 '한 세상 수단방법 가릴 것 없이 나 하나 편케 살다 가면 그 뿐 아니냐'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무상한 삶도 한 생에서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시작과 끝으로 토막쳐진 듯이 여겨지지만 무에서 유(有)가 나올 수 없고, 유가 무로 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로 한 철 사는 인생일지라도 분명코 해야할 일이 있다. 그것은 진화를 위한 노력이다.

진화의 종점을 부처님께서는 열반적정(涅槃寂靜)이라 하셨다.

불법의 ·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베파베리아
(VAPOUR BARRIER:알미늄 보온방습 단열재)

자체개발에 성공!

삼민산업(주)은 그 동안 수입에만 의존해온 고품질 베파베리아의 자체개발에 성공, 의장등록,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으며 국내 유리면 생산업체 납품과 국외수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삼민산업(주)이 개발한 베파베리아는

가. 경이적인 단열 보온효과가 있습니다.
나. 방습·방수 효과가 우수합니다.
다. 실내외 온도를 차단하므로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 냉동용 베파베리아 · 건축용 베파베리아 · 축사용 베파베리아
· 난연용 베파베리아 · 방수용 포장재 · 레저용 MAT

삼민산업주식회사 SAMMIN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4 나-109호
· 전화 : 0345-498-5533
· 팩스 : 0345-498-8998





천태종 제13대 중앙청년회장

이문수 씨

"대중과 호흡하는 청년회로서 내부조직 강화와 대외적 불법포교에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오는 5일 천태종 청년회 제13대 중앙회장에 취임한 이문수 회장은 청년불자들의 화합과 단결만이 새시대 불교를 이끄는 원동력임을 강조한다.

79년 성용사에 다니면서부터 15년 동안 꾸준히 신행활동을 해온 이회장은 "종단불교에서 벗어나 대중과 함께하는 도심불교의 지속적 포교를 위한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외 포교활동에 주력"

대중불교를 통한 환경보호운동, 생활불교를 통한 효행심 고취, 대도시 포교사업 적극동참, 청년불자의 인성교육과 불심고취 등이 이회장이 재임기간 동안 펼칠 사업.

발전된 종단의 위상에 맞추어 대외적인 활동에 힘쓸 계획이라는 이회장은 "내적인 활동과 대외적 활동이 균형을 이룰때만이 비로소 불교의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사회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문수 회장은 광복 5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애국불교에 바탕을 둔 올바른 민족사관 확립 및 불심 앙양에 전력할 계획이다. 〈우〉

전 원장 · 의장 초청 간담회



설정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지난달 23일 한국의 집에서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혜정 · 초우스님, 전 종회의장 월서 종하 정대스님등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는 종회의원들인 정휴 일면 중원 장윤 명진스님 등이 동석했다.

골프장 종사자에 법문



정관스님(법어사 주지)은 지난달 14일 동국 컨트리클럽강당에서 골프장종사자와 경기보조원 1백여명을 대상으로 '세계화에 따른 불교인의 역할'이란 제목의 강연을 했다.

불교신문사 부사장에



지홍스님(설악산 신흥사 주지)은 지난 20일자로 불교신문사 부사장에 임명되어 근무에 들어갔다.

교육원 역경위원장에



법성스님(대승원 원장)이 지난달 19일 개최된 조계종 교육원 산하 역경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공개협 신년교례회 참석





각현스님(사진 위, 연꽃마을재단이사장)과 안동일변호사(재가연합상임의장)는 지난 21일 을림픽프라자에서 열린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공개협) 신년교례회 및 95정책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보살의 원력' 주제로 법문



영조스님(증심사 주지)은 21일 광주능인회관에서 능인불교회초청법회에 참석, '보살의 원력'이란 주제의 법문을 했다.

춘천시민위한 법문



한정섭법사(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이사장)는 지난달 19일 춘천 강원예식장에서 춘천불교청년회와 맑고 향기롭게 춘천모임이 공동으로 개최한 신년맞이 춘천시민을 위한 불교교리 대강좌에서 '불법을 통해 보람된 삶을' 주제로 설법했다.

강원도민회 신년하례참석



정재철의원(강원도민회장)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30분 라마다 올림피아호텔에서 강원도민회 신년하례회및 한승수 대통령비서실장 취임축하회를 가졌다.

취임축하법회 참석

박일용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경찰청내 경승실 법당에서 열린 취임축하 및 경찰가족을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 축사를 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교회 신도들을 비롯해 경찰가족들이 참석했으며 승원주 스님이 법문했다.

KBS '국악한마당' 출연



안숙선씨(국악인)는 지난달 20일 KBS '국악 한마당'에 출연해 제자들과 함께 가야금병창, 야월삼경을 연주했다. 이날 방송에는 시인 박재삼, 연극인 손숙, 한복디자이너 허영씨 등이 나와 안숙선의 음악세계를 이야기했다.

동시집 '독도에~' 펴내

신현득씨(불교아동문학가)는 최근 제10 동시집 〈독도에 나무심기〉를 도서출판 미리내에서 펴냈다.



불교복지단체장 신년하례

조계종 총무원 문화사회부(부장 시현) 초청 복지단체장 신년하례및 간담회가 지난 달 24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 복지단체장들은 서로의 유대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모임을 계속 갖기로 결의, 다음 모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회장 이·취임식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회장 이 · 취임식 및 신년하례식이 지난 달 23일 타위호텔 젤코바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제2대 회장에 취임하는 김성호 불교미술관장을 비롯 박현성 (재)동국학원 이사 한보광 정각원장 오형근 불교대학원장등 동문 2백여명이 참석했다.



역대 군승단장 초청 신년 하례법회

육 · 해 · 공군 군승단(단장 강남석)이 주최한 '역대 군승단장 초청 신년하례법회'가 지난 달 20일 호국 원광사 백상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권오헌, 이지행, 김덕수, 권오성, 임봉준, 송병욱, 최명준 역대군승단장을 비롯 현역군법사 20여명이 참석했다.



◇ 한국증권거래소 법우회는 너와 내가 하나된 여법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고찰순례 설법들어

가족동참·교리 배우며 법우애 꽃피워

탐 방 — 증권거래소 법우회

10대의 포스트와 삼면에 설치된 대형 전자 게시판에 순간순간마다 증시현황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곳. 한국증권거래소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참불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90년 9월 창단된 한국증권거래소 법우회(회장 이광수)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익혀 청정한 마음을 닦으며 개인과 직장발전에 기여해 왔다.

한국증권거래소내 20여개 사내모임의 하나인 법우회는 총무과 업무과 관재과 홍보과 채권과 매매과 상장과 등 전부서 곳곳에 회원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법우회는 불교에 대해 호감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삼보가 무엇인지 합장은 왜 하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초심자 회원들을 위해 불교입문서를 함께 읽고 공부도 한다.

지난해에는 신륵사, 수덕사, 용문사, 보문사 등의 고찰을 찾아 큰스님의 설법을 들으며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히기도 했다.

이와함께 매달 3째주 수요일이면 여의도 대한불교조계종원(주지 현근)에서 법우회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법회를 진행하면서 바쁜생활 틈틈이 신행의 텃밭을 가꾸어 왔다.

"직장의 특성상 회사내에서의 어떤 활동보다는 정기법회와 사찰방문, 봉사활동을 하면서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고자 힘써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법우회 총무 송진효씨는 아직 부족한점이 많지만 참불교를 배우고 실천하려는 다부진 회원들이 있기에 언제나 새로운 다짐으로 신행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법우회 회원들은 '불교로 가는 길' '불교이야기' 등과 같은 책을 읽고 대 · 소승불교의 기초교리와 사상을 세세하게 정리해 서로 나누어주며 다른 회원의 공부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읽은 책을 가져와 서로 권하기도 하면서 정을 나누고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함께 나누며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여여한 법우애를 꽃피우고 있다.

돈독한 불심과 법우애를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는 법우회는 지난 91년부터 한국장애자 시설협회의 협조를 얻어 송암보육원등을 방문하고 전회원이 한마음으로 봉사를 통한 신행활동을 엮어오고 있기도 하다.

한국증권거래소 법우회는 불법연구 및 토의, 유명불교인사 초청강의 및 외부설법청강, 대내외 각종 보시 참가, 유명사찰 방문 교육등의 95년 활동 계획을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올해도 보람되고 알찬 신행활동으로 가득 채울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95 불교계 샛별 ★

「만화 화엄경」 작가

조성연 씨



불교만화의 새 영역개척 … 영화도 계획

본격적인 장편 불교만화인 〈만화 화엄경〉 제4권을 내놓으면서 아직 황무지인 불교만화의 새영역을 앞장서서 개척하고 있는 불교만화가 조성연씨(38).

"만화가로 살아가려면 항상 동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더구나 불교만화가라면 선재동자처럼 순수와 열정이 있는 동심을 지녀야 세상의 참모습을 볼 수 있고 편견없이 경전의 세계를 영상화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조씨는 신심있는 불교신자로서 영어 · 논리학 등의 참고서 만화를 15년간 그려오다가, 89년도에 불교만화사 사장인 임기준법사를 만나면서부터 불교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 불교만화 보급에 정열을 쏟기 시작했다.

89년도에 '성철스님의 일대기'와 〈화엄경〉의 만화화를 기획한 후 자료수집, 주제설정, 각색의 어려움등을 겪은 끝에 3년여만에 『입법계품(入法界品)』의 선재동자 구도기와 〈만화 성철 큰스님〉을 선보이게 됐다.

"처음 〈만화 성철 큰스님〉을 내놓았을 때만 해도 아이들만 보는 만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었습니다. 막상 만화를 보신 분들을 조사해 보니, 청소년부터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연령층이 고르게 나타나 만화로 다양한 연령층에 문서포교를 전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조씨는 만화는 아이들이나 보고, 내용도 저급하다는 만화에 대한 편견이 불교만화의 성장을 저해시키는 한 요인이라며, "불교만화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 스토리작가와 만화작가에게 글과 그림을 분담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하고, 불교만화가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전의 대중화 · 현대화에 방향을 설정한 만큼 무한한 상상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희화성, 스토리 전개의 극화, 그림과 자문을 활용한 의미전달의 다양성 등 만화의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살리면서, 앞으로도 아함 · 방등 · 화엄 · 반야 · 열반 · 법화 등 제 경전에서 꼭 전해야 할 내용을 흥미로우면서도 쉽게 일반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정진해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는 조씨는 "가장 친근한 문서포교의 방편으로서의 불교만화는 가르침의 씨앗을 받아 키워야 할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씨는 여건이 조성되면 불교만화사 · 불교TV와 함께 〈화엄경〉의 만화영화화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재경 기자〉

21세기를 • 이끌어갈 • 선재를 • 찾습니다

1995학년도 법사원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학(불교과)통신과정
대학원(법사원)직강 및 통신과정

국내최초 영상비디오 통신강좌 실시!!

법사원 불교대학 각 과정 2년제

■ 교계 정예포교 지도자 양성목적으로 설립함.
■ 대중불교운동과 포교능력배양을 위한 최고의 교과과정과 강사진.
■ 저렴한 학비로 信 · 解 · 行과 복덕이 원만한 지도자 배양.

1. **모집인원**: 불교과 통신과정 ○○명, 법사원 직강 ○○명, 통신과정 ○○명
   연구원: 96년 개설예정
2. **입학자격**: 불교과 / 고졸이상의 학력자 · 법사원 / 불교대학 2년 졸업자 이상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 18:00까지
4. **전형방법**: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5. **면 접**: 법사원 지원자는 2월 26일 면접(오전 10시부터)
6.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통(본대학 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최종학력증명 1통 4) 반명함사진 3매

● 특 전 ●
1) 불교과 졸업 후 법사고시 합격자에 한해 법사증 수여, 법사과에 입학 자격.
2) 각종 장학제도 마련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는 장학금을 지급함.
3) 법사원 졸업자는 법계고시를 보며 합격자는 법계품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 교육부에 문의 바람.

교육과정 및 과목 · 강사

대학(불교과)은 통신과정으로 녹음테이프와 교과서를 공부하며 대학원(법사원)은 출석수강 및 통신과정이 있으며 통신과정은 **국내 최초로 비디오 테이프로** 지역분교에서 공부하게 됨.
서울, 경기 지역은 본교에서 따로 공부함.

〈대학〉 불교과 2년

	1 학 기	2 학 기
1학년	불타의생애 (목정배)	불전개설 (목정배)
	종교학 (김항배)	인도불교사 (전재성)
	인도문화(철학) (신성현)	종교사회학 (이동준)
	불교개론 (해주스님)	중국문화(철학) (고재욱)
2학년	원시불교개설 (조용길)	중국불교사 (차차석)
	대승불교개설 (권기종)	불교계율사상 (목정배)
	불교와사회 (박경준)	불교포교학 (김호성)
	한국불교사상개설 (목정배)	대승불교보살사상 (계환스님)

〈대학원〉 법사원 2년

	1-2 학 기
1학년	아함경 (목정배)
	법구경 목요논강
	천수경 (김호성)
	불교의식-이론과 실기 (운곡스님)
2학년	구사론
	법화경
	금강경

〈연구원〉 1996년도 예정

전공과목 선택		
열	반	경
기	신	론
화	엄	경
중		론
원	각	경
천	태	학

법사원 • 불교대학 학장 철학박사 목정배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사회(부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88-6 뉴장충빌딩 5층
전화(02)266-1827, 264-1827, 팩스(02)266-1827

지방분교 및 문의처
부산분교: (051)818-0575 어린이불교문화원 / 울산분교: (0522)65-2727 울산불교문화원 / 고양분교: (02)381-1234 성보사포교원 / 여수분교: (0662)651-4658 정회일 법사 / 원주분교: (0371)47-0617 불심사 / 김해분교: (0525)34-8807 조유식 법사 / 포항분교: (0562)44-7597 이인식 법사 / 대구분교: (053)941-0311, 954-7395 전순경 거사 / 이천분교: (0336)635-3748 심의래 법사 / 안산 · 시흥분교: (0345)498-7700~2 현법스님 / 한국스카우트 불교지도자회: 735-8165 회장 김해인 법사 · 사무국장 최종규 법사 / 청주분교: (0431)271-8244 김용우 법사 / 경주분교: (0561)749-2395 박호봉 거사 / 제주분교: (064)22-5027 현차생 법사 / 안양불교문화원: (0343)72-7577 신숙례 법사 / 강화군: (0349)937-3272 공도식 법사



삽화 · 이기선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⑬

生命

"일체의 생명은 모두 존엄한 것"

모든 중생 사랑할때 재난 최소화

은몽 불바다. 연일 비추이는 텔레비전의 영상에는 불길이 치솟지 않는 날이 없다. 체첸이 그렇다. 하루에도 수십명, 수백명의 인명이 살생당하고 있다. 공공건물, 거주공간이 일시에 무참하게 파괴되고 화염에 휩싸이고 있다. 무지비한 현상이다.

또 있다. 일본 관서지방에서 뒤틀린 직하지진이다. 고오베(神戶), 오사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고 아비규환의 지옥세계가 되어 버렸다.

체첸이 인간이 자아낸 전쟁이라 할것 같으면 관서지진은 천재지변이다. 인재이건 천재이건 사람이나 모든 시설물, 공장, 공공시설, 산업기지, 학교, 도로, 고속도로, 철도, 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불덩이에 타버리고 있는 것은 서로가 같은 현상이다.

인간이 발견한 지혜, 발명한 문명과학이 대단하다고 자랑을 하지만 전쟁이나 천변지재에는 어디 손하나 쓸 수 없는 무용한 것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목숨은 존귀하다'고 하셨다. 아니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라 일체의 생명은 모두가 존엄한 것이라 하셨다. 금강경에는 이 세상의 생명의 실체를 난생(卵生), 태생(胎生), 습생(濕生), 화생(化生) 또한 유급(有急), 무급(無急), 유상(有想), 무상(無想)| 그리고 비유상리무상(非有想利無想)으로 대별하고 있다. 이 얼마나 많은 생명의 무량해(無量海)인가.

아상이 만든 불행

우리는 사람만이 최상의 것이라 자처하고 있으며, 사람만이 잘살면 된다고 아상을 부리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자신이나 넓게는 자기민족만이 독립자존하고 호의호식하는 경제생활, 환락생활을 하면된다고 고집한다. 이러한 고집이 이민족이나 다른 국가를 침탈, 강점하려는 속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이 전쟁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살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운의 북소리를 울리지 않는 날이 없고 번개불의 폭발음을 낮추어 본적이 없다. 이 북소리와 번개불에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거주를 잃었고, 고아와 노인들이 길바닥에서 노숙하면서 찬서리를 맞아야 하였다. 그런데 부처님은 '태생, 난생 아니 비유상리무상의 생명까지 안온한 열반(涅槃)에 들게 하였다하더라도 나는 한 사람도 무여열반에 들게 한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 소식은 무슨 말인가. 보통 범부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소식이다.

보통 범부 중생의 살림은 조그만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제 자신이 하였다고 뽐내고 싶은 아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구류(九類) 중생을 일시에 무여열반에 들게 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집착이나 자랑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다. 이러한 일은 대승의 행위로 한 것이고, 또한 대승의 행위 그 자체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주상(無住相)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생명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은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색, 무색, 유상, 무상의 생명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질적 생명체 이것은 유기체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무색이란 무엇인가. 물질적이 아닌것. 즉 비물질적 생명으로 돌려 해석해 보면 될 것이다. 무기질 생명이 아닐까. 무기질은 눈으로 감별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유색적이고 태난습화에 국집되어 있는 사고현상에 커다란 충격을 주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적 생명. 아니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 마저 생명체라고 하신 부처님의 여실지견(如實智見)에 그저 경탄할 뿐이다.

부처님의 생명철학

우리가 부처님의 깨침을 경탄만으로 우러러 모시는 것은 불교인으로 대단히 소홀하고 경솔한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구류중생을 자민(慈愍)하는 자비와 슬기를 가슴속에 이끌어 모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마저도 사랑하고 애민하지 않는 이 마당에 부처님의 자비무량심을 터득함으로 인간적인 인간, 더 나아가 중생섭수의 자비가 꽃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구 도처 삼재팔난이 부단히 초래된다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화되면 자연적 재난이 지멸(止滅)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일체중생을 안온한 세계에 건너게 하여도 나는 한 중생도 멸도(滅度)시킨 것이 없다는 대승적 생명사상을 확신하고 실행하는 데서 비롯된다.

아상은 증오, 경쟁, 전쟁이다. 무아상은 섭수, 두호, 평화이다. 우리는 무아상의 종교적 신념으로 이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고 부둥켜 안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철학이 아닐까.

나의 '하늘새'는 자유와 방생

산문밖의 선禪

조각가 박 찬 갑



새야 새야 하늘새야
어느날 나를 찾아 오려느냐
나는 너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가 되어
기쁜 노래를 부르자.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라는 호젓한 마을. 음지산에 쌓인 눈은 바람에 풀풀 먼지처럼 날리는데 질척질척 겨울길은 구두 밑창에 달라 붙으며 말을 한다.

'이곳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듯하고 '자신 없으면 돌아가라'고 하는 것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내 산비탈 아래 단아한 집채를 만나면 걸어 온 진흙길의 이야기쯤은 머리속 어느 구석에도 남지 않게 된다.

희끄므레한 하늘 저 편으로 열두어 마리쯤의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 현집을 뜯은 듯한 목재 더미 옆의 집채는 조각가 박찬갑씨의 작업장이다. 농촌 마을의 이웃집 아저씨같이 서글서글하고 다부진 체격을 지닌 주인이 열어준 문안에는 아! 새, 새들이 가득하다. 아무나 드나들수 있는 곳도 아니고 자신없는 사람은 돌아갈 수 밖에 없느 곳임을 일제히 얘기하는 듯한 저 새들의 부동자세.

망치, 정, 끌, 대패등 속이 어지러운 작업실의 사방에 아무렇게나 자리한 새들은 주인 박찬갑씨의 꿈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

손질 안된 나무토막에 걸터 앉아 자세히 살펴본다. 새들은 저마다 울고 있다. 뒤틀린 모가지로 울고 있고 부러진 날개죽지로 울고 있다. 날개를 잃어버린채 갇혀있어 울고 있고 밖으로 반쯤만 나간채로 울고 있다. 어리둥절한 객의 모양새를 바라보는 주인의 눈빛이 그윽해 지는 순간 질문을 던진다.

-이 새들은 무엇입니까.

▲인간입니다.

「하늘새」란 작품제목을 놔두고 하필 인간이라니. 주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일까.

"5년쯤 전부터 하늘새를 테마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한 여자 아이가 유괴되어 생매장 당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나의 딸들에 대한 새로운 사랑이 솟아 오르는 걸 느꼈고 그 불행한 아이의 영혼을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새를 날려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 동기로 시작된 박씨의 작업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쪼고 다듬고 갈고 깎아 붙이는 작업, 그 긴 여행에서 박씨는 수 많은 하늘새들을 나무건 구리이건 브론즈이건 되는대로 만들어 날려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늘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새는 그 마음의 자유이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의던 타의던 구속되고 속박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마다 자신의 하늘을 잃고 사는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하늘을 깨닫고 그 하늘의 공활함 속으로 자유로이 날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해탈이란 말도 성립되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 자비무량심 실행을 놓은 새들이 인간인 것인지를 알듯한 설명이다. 박씨가 날려 보내는 하늘새, 그 새들은 그저 우리들의 삶 언저리를 선회하다가 제갈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새가 아니다.

박씨는 장애자들을 모아 조각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들이 스스로 하늘새를 만들어 삶의 슬픔을 날려 보내도록 도와주며 참인간의 삶과 행복을 경험하기도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하늘새를 통한 인간방생의 실천이었다.

아직 그는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

박씨는 누구와의 대화에서든 "나는 조각가 이전에 사람"임을 강조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인간의 삶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장애자들과의 끈끈한 인연 역시 그런 애착의 산물일 것이다. 91년 이후 세번이나 개최한 '저 높이 나는 새의 슬픔을 그대는 아시나요'전에서도 그의 사람에 대한 애착은 뚜렷이 베어 났었다.

그런가하면 또 박씨는 30년을 몰두해온 조각가로서의 자기완성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하다.

하나의 테마를 6년이 넘게, 아니 무한정으로라도 붙들고 캐내겠다는 다부진 의욕이 온 몸에 끔틀대고 있다.

"오늘날의 작가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없는 것이 마음이라면 있는 것은 오히려 껍데기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이대로의 상태에서 없는 것을 찾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의 창작론은 지극히 선적이다. 헌집이나 폐사를 뜯어낸 기둥 서까래 용마루들을 얻어다가 작업실에 늘여놓고 그 퀘퀘한 목재들과 수없는 대화를 한 후에 최대한 원형의 미를 살리며 작업에 임하는 그의 자세. 박씨는 그것이 바로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깨우침'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나무속의 인간도 보고 나무속의 새도 만나는 것이란 얘기다. 박씨는 자신이 빚어내는 새가 김성동의 〈만다라〉에 나오는 '병속의 새'이기도 하고 걸프전의 공포에 질린채 폐유를 뒤집어 쓰고 죽은 새이기도 하다고 덧붙인다. "그렇지만 보다 분명한 건 이 새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지혜를 일깨워 주는 하늘새라는 사실입니다."박씨가 강조하는 하늘새의 의미는 두고두고 풀어야 할 화두임이 분명하다.

저녁 햇살이 사각으로 비쳐드는 작업실. 주인의 마음이 넉넉하여 덴마크 대사관들이나 이천군 기관장들이 자주 찾아와 담소를 나눈다는 그 작업실의 주인은 올해도 몇번의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다. 나무토막을 쪼고 쌀어내는 분주한 주인의 손놀림이 음악을 연주하는 듯하다.

다시 질척이는 길로 발을 내딛으며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 있다.

-인간은 언제 마음의 자유를 찾고 날아갈 수 있을까요.

▲ 하늘새에게 물어보시오.

〈임연태 기자〉

나무 구리등에 생명 넣기 "몰두"

장애인에게 조각 가르치며 '희망' 심어

1995학년도 • 신(편)입생 모집요강

동방불교대학

(佛敎學科 · 梵唄科 · 佛敎美術科 · 韓醫豫科)

-4년제 주간, 2년제 및 통신과정 병설-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4년제 대학교육 체제와 종합적인 불교 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있는 불자들의 입학을 바라고 있습니다.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불교학과	불교교리와 불교 경전을 교육	60명 (통신생 포함)	4년제
범 패 과	전통불교의식인 상주권공을 교육	15명	2년제
불교미술과	전통불교미술 교과를 교육	25명	4년제
한의예과	한의학개론 · 생리학 · 본초학개론 등 미국 결연 대학 한의학과 예과 과정을 교육	40명	2년제

2 응시자격(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불교 강원 사교과 이상 수료자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1) 필기시험(불교상식, 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및 면접(공통)
(2) 한의예과는 국어 · 영어 · 수학 · 화학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1월 16일 ~ 2월 17일
(평일은 10:00~17:00까지, 토요일은 14: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5 전형일자: 1995년 2월 19일(日) 10:00~18:00

6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1통
(5)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통 (6) 반명함판 사진 6매
(7) 전형료:30,000원(단, 불교미술과는 40,000)

7 참고사항
(1) 한의예과 수료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사우스베일로 대학과의 교육 결연에 의거, 사우스베일로 대학에 편입하여 소정의 학위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결연 대학에서는 한국어로 교육받고 시험도 한국어로 응시할 수 있음.
(3) 본 대학 이수자엔 태고종단의 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함.
(4) 강좌 개설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임.
(5) 통신생은 월 1회 1박 2일 출석교육과 하계 · 동계 방학 중의 2박 3일 출석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6) 기숙사 운영(지방학생은 문의 바람)

편입생 모집요강

1. 응시자격
(1) 본대학 2년 수료자 (2) 강원 대교과 수료자
(3)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불교미술과는 미술대학 졸업자) (4)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2. 기타
(1) 응시자의 수학 경력에 따라 2학년 또는 3학년에 편입토록 함.
(2) 4년제 이수자에겐 제1급 중앙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태고종단 승려에겐 중덕 법계를 품수함. ※원서교부 등 기타 사항은 상기 신입생 요강에 준함.

■원서교부 및 접수처:(1) 본 대학 교학처(☎ 763-0229,8536) (2) 태고종 총무원(☎ 745-2030) (3) 태고종단 각 교구 종무원 (4) 경서원(조계사 앞 ☎ 733-3345)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해 인 사

◇대적광전

佛身普放大光明(불신보방대광명) 부처님이 대광명을 두루 놓으사

色相無邊極淸淨(색상무변극청정) 형색(形色)과 모양 가

대원군 친필…해탈환희심 묘사

이없어 지극히 청정하시네.

如雲充滿一切土(여운충만일체토) 구름이 모든 국토(國土)에 충만하듯이

處處稱揚佛功德(처처칭양불공덕) 곳곳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시네.

光相所照成歡喜(광상소조함환희) 광명이 비치는 곳 넘치는 환희여

衆生有苦悉除滅(중생유고실제멸) 중생은 고통을 씻은듯이 잊는도다.

해 설 대적광전 전면 기둥에 붙혀진 이 주련의 내용은 〈화엄경〉에 나오는 게송이다. 즉 〈당화엄경〉 제11권 「비로자나품」 제6 대위광동자게송인데 글씨는 흥선 대원군의 친필이어서 흥미롭다.

우선 부처님의 대광명이 밝게 비친 모든 국토의 장엄함을 묘사하고 그것을 찬탄하는 중생의 환희심을 경쾌하고 장대하게 표현하고 있다. 중생의 고통을 말끔히 씻어내는 부처님의 대광명이 대적광전의 근엄과 조화롭게 다가오는 글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염화실

定力超香蕉(정력초향전) 정력(定力)은 향 연기 피어오름보다 더 고요해

齋心稱淨衣(재심칭정의) 재계(齋戒)한 마음 정의(淨衣)라 이르네.

石怪魚翻藻(석괴어번조) 돌이 괴이하니 고기가 수초를 휘집고

花奇鳥囀詩(화기조전시) 꽃이 기이하니 새가 시(詩)를 읊조린다.

培栽心上地(배재심상지) 마음의 터밭을 일구어

涵養性中天(함양성중천) 본성(本性)의 꽃을 가꾼다.

해 설 매우 시적인 이 글귀는 언제 누가 쓴 것인지 파악되지 않는다. 선정삼매에서 깨달음의 열락을 구하는 염화실의 주련답게 반짝이는 선지(禪指)가 돋보인다. 정력(定力)이란 모든 산만함을 쳐부술 수 있는 선정의 힘을 뜻하고 재심(齋心)은 부정을 버리고 몸을 깨끗이 하는 마음 가짐을 의미한다.

〈안동 경안여중 교사〉

"선학원 항일의식 투철한 스님들이 창설"

만해·용성·만공 중심… 사찰령·대처식육반대 선풍진작

김광식씨 논문서 밝혀

조계종·선학원 문제가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한 가운데, 일제하 선학원의 운영과 성격을 연구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인 김광식씨가 최근 나온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에 발표한 「일제하 선학원의 운영과 그 성격」이 그것.

그간 선학원에 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김씨의 논문은 일제하 한국 불교계의 실상과 성격을 이해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논문을 통해, "선학원은 일제의 사찰령(寺刹令)과 일본 불교의 침투로 인한 한국 전통불교의 몰락을 개탄한 항일의식을 소유한 승려들의 발로에 의해 1921년 창설되었다"고 말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한용운·백용성·송만공 등의 승려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밝혔다.

선학원은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만연되어 가고 있었던 이른바 '대처식육(帶妻食肉)'에 대항하며 한국 전통불교를 수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서 일제하 불교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는 것.

그러나 선학원의 제반 활동은 재정문제로 인해 그 존립기반에 대한 문제가 초창기부터 제기되고 있었으며, 중일전쟁·태평양전쟁 이후부터는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통치에 굴절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논문에서 일제하 선학원의 창설·침체·재건·변화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921년 11월30일, 선학원 창건 △1922년 3월30일, 선풍(禪風)의 진작과 전국 수좌들의 수행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김광식씨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의 조직 △1926년 5월, 범어사 포교당으로 그 기능이 용도 변경되면서 침체화 △1931년 김적음(金寂音)에 의한 선학원 중흥 △1934년 12월, 재정문제를 법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재단법인 조선불교선리참구원으로의 개편 △1941년 2월말~3월초, 선학과 계율의 종지를 지키기 위한 청정비구들의 유교법회(遺敎法會) 개최 △1942년, 한국 불교의 중흥조인 경허선사의 문집 발간 주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을 전후한 일제의 강압적인 군국주의 체제로 인한 굴절 혹은 변질등.

〈김재경기자〉

"신라 태현 유식학은 독창적"

중국 인도 학설비판 주체적 태도 지녀

방인교수 서울대 박사 논문

원효, 경흥과 함께 신라 3대 저술가에 속하면서 원측 이후의 신라 유식학을 대표하는 태현(太賢; 742-764)의 사상사적 성격과 철학적 체계를 조망한 논문이 나왔다.

경북대 철학과 방인교수는 94년도 후반기 서울대 철학박사학위논문인 「태현의 유식철학 연구」를 통해, "원측 이후 진행된 신라 유식학의 이론적 측면에서의 발전은 태현에 이르러 그 정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방교수는 논문에서, "태현은


◇방인교수

〈삼국유사〉에서 신라의 유가조(瑜伽祖)라 불리울 만큼 원측과 비견되는 유식사상가의 위치를 점했다"며, 그가 초기의 화엄종을 위주로 하는 성종(性宗)에서 후기의 유식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상종(相宗)의 계보로 사상적 전환을 이루면서도 통불교적 회통성을 유지한 사실은 높이 평가된다고 밝혔다.

방교수는 태현이 원측과 자신의 스승인 도증을 비롯, 중국 법상종의 규기의 학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견지했으며, 유식학의 교리를 인도의 전통철학인 상카철학과 바이세시카철학과 비교할 만큼 폭넓은 학식과 국제적 안목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태현 유식학의 핵심부분은 인식 객관에 관한 이론인 삼류경설(三類境說)과 인식구조에 관한 이론인 사분설(四分說)로 지적되는데, 신라 견등(見登)과 일본의 선주(善珠)가 「대승기신론등이약집」과 「성유식론료의증명기」에서 태현의 사분론을 인용하고 있음을 볼 때 그 독창성이 일찍부터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

"종교전문교육기관 공식 인정을"

종교교육문제 토론서 제기

강원과 불교대학, 신학원, 신학교 등이 공교육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종교전문 교육기관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달 21일 한국종교전문교육협의회(회장 윤이흠) 주최로 열린 '한국종교전문교육문제 대토론회'에서 동국대 박선영교수(교육학과)와 충성교회 신태웅목사에 의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선


◇박선영교수

영교수는 「종교전문교육의 방향과 전망」이란 발표문을 통해, "오늘날 야기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의 극복을 위해 종교에 요청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교육적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여러 종교교단들이 연


◇신태웅목사

합하여 추진하고 있는 종교전문교육의 공식화는 마땅히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태웅목사는 「한국종교전문교육의 현황과 대책」을 통해 종교전문교육의 활성화 대책으로서, △종교전문 교육기관을 정부에서 인가하고 질적 향상을 유도할 것, △종교전문교육의 자율적 통제기관 설립, △전문성의 함양 등을 제시했다.

한글대장경 14권 속간

지난해 동국대 역경원

동국대 역경원(원장 월운)은 최근 〈십송률(十誦律)〉,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대일경(大日經)〉·금강정경(金剛頂經)〉, 〈화엄경 탑현기〉 1, 2권등 한글대장경 14권을 추가로 출간함으로써 지난 한해동안 모두 26권의 경서를 번역하는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인도철학' 제4집 발간

논문 12편 실어

인도철학회(회장 원의범)는 최근 〈인도철학〉 제4집을 발간했다.

이번 논집에는 △간디의 형이상학에 끼친 베단타의 영향(김선근) △인도의 제사관 소고(김재천) △「바가바드 기따」의 제사관(김호성) △쉬와 디따야의 7범주론(이지수) △능가경의 선사상 연구(이법산) △무아와 윤회의 양립문제(정승석) △「중론」에 나타난 용수의 연기관(윤종갑) 등 모두 12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돌 장승이 아이 낳는다는 뜻은

문 참선곡 맨 끝줄에 보면 '돌 장승이 아이 날 그때 말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이 구절을 화두로 삼아볼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 뜻이 무언지 궁금합니다.

(부산시 사하구 김천동·이숙정)

답 그것은 말로 설명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공부 잘 하면 돌 장승이 아기 낳는 소식, 돌 장승이 우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한 군데로 몰아서 넣고 한 군데서 몰아내와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했습니다. 이 도리를 알면 바로 돌 장승 아기 낳는 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만 가지 법을 내 놓을 수도 있고 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부터 내가 만가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만가지 사람이 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것 하나 이심전심으로 말 안하고 안 듣는 게 없습니다. 부처님을 상징으로 모셔놓고 한 자리에 앉았을 때 모두가 부처님께로 합쳐지기도 하고 부처님이 내게 합쳐지기도 합니다. 또 모셔놓은 영가의 위패를 내 마음에서 둘 아니게 한마음으로 돌린다면 영단을 치워 버릴 수도 있습니다.

둘이든 나무든 기계든 내 마음으로 한데 합쳐 둘 아니라고 본다면 둘이 아닌 까닭에 이심전심의 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생각 낸다는게 무슨 뜻입니까

문 금강삼매경에 보면 무주보살이 세존께 '어떤 것을 한 생각의 움직임이라 하리까?' 여쭙자 세존께서 '한생각 움직이면 오음이 걸쳐나가니 오음가운데 오십악이 갖춰져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한생각 낸다는 경지는 무엇을 말함인지요?

(대구 중구 하서동·목일존)

답 한생각 내고 들인다 함은 사량따라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한생각이라니까 개별적인 생각으로 앞기 쉬운데 전체가 함께 돌아가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생각이라는 그 자체도 없는 것이 한생각입니다. 즉 머무름이 없는데서 생각을 내는 것이지 머무름이 있는데서 생각을 낸다면 그것은 이미 경계에 매인 생각이니 사량분별과 다름이 아닙니다.

아무런 집착없이 한생각 일으킨 것, 그것이 한생각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문기를 어떤 것이 한생각이냐고 했으니 이미 머무는 바가 있는게 되고 따라서 생각을 지은 그 자리에 욕심, 애착, 편견, 분별, 아상이 붙어 있을 것이니 오음가운데 오십악이 갖춰져 있다고 경책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머무는 바 없이 한생각 일어난다면 온 우주의 마음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과학공부가 더 낫지 않을까요

문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입니다. 구태여 마음공부를 하지 않아도 살아 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습니까?

(광주시 북구 일곡동·김찬규)

답 현대 과학문명이 아무리 고도화되었다 한지라도 과학만으로 인류가 직면케 되는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개구리 알 하나에서 원리를 찾더라도 그 가짓수는 무한이라고 해야 할 정도인데 어느때 가서 과학이 그것을 다 밝혀 내겠습니까. 그러기에 인지(人智)의 과학이 아니라 부처님 지혜의 심성과학, 즉 마음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문명이 장차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그것으로서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언하건대 마음공부란 최상승의 공부입니다. 알다시피 과학자의 능력이 첨단을 걸을만큼 고도화되었다 해도 과학자가 은하가 될 수 없고 태양이 될 수 없고, 저 나무나 곤충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체 만물만생이 다 내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란 체가 없는 것이니 모든 것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저 수미산에도 우주에도 티끌에도 응할 수 있고, 사람 소 돼지 곤충 미생물에도 응해 한 찰나에 무명을 벗겨 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없는 문이요 만가지 법에 걸림없이 나투는 평등의 활법이 바로 마음 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고 감에 걸림이 없으니 여래라 하지 않습니까. 현대 과학문명이 우리에게 편익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기필코 마음을 계발해야만 사방의 벽을 뚫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계발하지 않는다면 점점 살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물질로만 치닫는 것은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형국인 것입니다.

주인공에 놓는 방법을 여쭙니다

문 스님께서는 좋은 일, 나쁜 일, 어렵고 힘든 일, 아프고 괴로운 일 등 일체를 근본 마음자리-한마음 주인공에 믿고 맡겨서 자커보라 하시는데 놓는다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천시 북구 부평1동·류경훈)

답 일체의 모든 것, 즉 이 우주천지의 모든 것이 나온 근본은 바로 마음이요, 따라서 전체는 한 법망으로 직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는 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되맡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자는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을 연상하는데 마음엔 제가 없는 법, 따라서 주인공도 본래 공한 마음자리 입니다.

따라서 '어디에다 놓느냐' 했을 때 '공에다 놓는다', '공은 어떤 것이냐', '모든 생명이 같이 돌아가는 곳(장소가 아님)이 공이다', 그러면 '나는 빠졌느냐고' '나까지 거기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전체가 공이요 나조차도 공인데 공에다 놓을 것은 어디있고 빼어 들 것은 어디 있느냐' 하겠지요.

전체가 공이라 본래 놓아진 것이지만 그 도리를 모르고 '나' '내것'하니까 공에다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놓는다 함은 '내가 하는게 아니라 주인공 도리에 하는 것이니 공이 하는 것이다'하고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굳게 믿고 놓으니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요.

놓는 것은 믿음입니다.

1995학년도 법사를 육성하는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

통신 야간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모 집 안 내

1. 모집학부 : 법사과정·오종교법사과정
·오종대법사과정
2. 모집인원 : 출강 ○○명, 통신 ○○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자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오종교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 :
1995년 1월 5일 ~ 2월 28일까지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733-1959
737-5305 FAX:(02)720-1836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 즉시 보내드립니다 *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 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국제포교에 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함
· 각종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733-1959
737-5305 FAX:(02)720-1836

생활 한자와 예쁜 글씨를 함께 배우는
每日漢文
매월 4,000원
일시불 값 10,000원
통신 주문제 실시

漢字를 모르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비결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 속에 漢字로 된 우리말이 70%
가정과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
3개월 코스!
주요내용 : 명심보감 해설 / 고사성어 / 일반 상식 / 1일 1언(금언)

도서출판 한넉다비드
서울 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1-7 미도 B/D307
전화: 직통) 253-6894~5
팩스: 785-1228, 253-6895

수 요 인 터 뷰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 힘쓰겠어요



동국대 새 총장

송 석 구 박사

대담 : 최정희 편집국장

—축하드립니다. 4년전에 이미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할 원력을 세우셨고, 이제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소감부터 한 말씀 주시죠.

▲먼저 일을 하도록 밀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동국발전의 외길을 걷겠다'는 서원을 부처님께 다시 발원 올리겠습니다.

—그간 부총장직을 비롯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학교살림에 남다른 역할을 해오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4년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주실 걸로 기대가 큽니다.

종단 · 학교의 상호지원

특히 세기가 변하는 2천년대와 개교 1백주년(2006년)을 눈앞에 두고있어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총장직을 맡으셨다고 봅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할 일이 많으실텐데요. 어디에 역점을 두고 학교를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알다시피 우리학교는 종립대학입니다. '불국토건설'이라는 동국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세계화, 개방화의 주역이 되고 첨단정보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정진하는 자세로 학교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단과 학교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상호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연계성을 갖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근 종단에서는 '깨달음의 사회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불교가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을 동국대학교도 함께 가야한다는 거죠. '깨달음의 사회화'는 곧 더불어 사는 자리이타적인 신행과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발맞춰 우리학교는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교육불사를 위한 외형적인 설계가 있으실텐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일산에 제 3 캠퍼스를 건설하고 불교종합병원을 세울 계획입니다. 총 32만평의 부지 마련 계획이 서 있고, 이미 4만5천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스터플랜을 완성시켜 99년에 신축교사로 일부대학이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2003년까지 필요한 대학이 이전 완료하는 대작불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병원설립에 대해서는 총무처장 시절부터 관심갖고 경주, 포항, 서울병원 개원에 애써오신줄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 기획실장과 의료원장 등을 역임하셨지요.

▲관심갖고 일하다 보니까 경험도 생겨 어렵지만 해낼 수 있다고 자신을 가져봅니다.

일산캠퍼스에 1천병상 규모의 불교병원을 세워 2천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포항병원도 신축하고 경주의대 옆부지에 의료휴양시설을 건립하여 그 수익금으로 의대교수 해외연수 및 교수연구지원, 교직원 복지사업을 펴려고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사들이 원만성취되려면 재정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스님들과 2천만 불자, 그리고 동문들이 함께하는 동국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경주부속병원과 연계한 콘도형 휴양시설, 부동산 활용등 수익사업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외형적인 불사에 걸맞게 내실을 다지는 교육개혁도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학, 전산,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졸업패스제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입생 정원규모의 기숙사를 건립, 전교생의 어학, 컴퓨터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국제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용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전교수에게 강의조교를 배치하고 연구환경 개선에도 주력하려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까지 밝히신 계획이 모두 학교발전안이지만 그밖에 또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구상이 있으시면 …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 개교 90주년인 내년에 불교국제학술회를 열고, 외국인에게 불교를 알리는 홍보의 일환으로 불교 심머스쿨을 실시할 것입니다.

—불자로서 '율곡의 철학사상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저서 〈불교와 유교〉등 발표된 논저가 상당하신데요. 이러한 학문적 축적이 학교경영에 밑거름이 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불교와 유교가 서로 융섭하는 사상체계를 불심으로 활용하여 경영합리화를 이뤄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108배를 하는 총장님의 영향으로 학교내의 불심 또한 달라지지 않을까요.

▲믿음, 신행이 강제성을 띨 수야 없겠지만 여건과 분위기 조성에 따라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정기간의 사찰수련을 적극 지원하고 생활불교를 신학풍운동으로 연계 하겠습니다. 종립학교다운 학내분위기가 곧 동국의 특징이며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의 대학으로 웅비하기 위해서는 불교정신으로 21세기의 과제를 푸는 학문적 길을 열어야 하겠죠. 이렇게 볼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동국의 내일은 밝다고 확신합니다.

—광복 50주년을 맞는 올해, 해방이후의 동국대 출신이 총장으로 선임된 것은 불교사와 학교 1백년사에 한획을 긋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경소 말씀하시는 '보현행원'으로 큰 업(業)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에 제3캠퍼스 · 불교병원 건립
동국발전기금 · 수익사업전개 재정확보

약 력

-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
- 국립대만대 철학 연구소 수학
- 동국대 대학원서 철학박사 취득
- 77년부터 동국대 교수, 부총장 역임
- 한국 동양철학회 회장
- 박사학위논문 '율곡의 철학사상연구' 등 논저 다수

나의 수행일기

한 명 숙 〈가수〉



미국서 발심 … 기쁨으로 음성공양

내가 불교와 처음으로 인연의 끈을 잇게 된것은 결혼과 더불어서였다.

결혼은 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불교와의 만남이었다.

경상북도 영천군 고경면으로 시집을 간 내게 시어머니께서는 "얘야, 우리집안은 대대로 불교집안이란다."하시며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만해도 나이도 어렸고 시어머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냥 절에 따라 다니는 그런 불자였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초하루, 보름이면 절에가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히며 그냥 그렇게 평범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중 지난 87년에 미국에 가있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LA에 갔었다. 그곳에서 독실한 불자이자 가수인 송춘희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먼 타국땅에 와서도 스님 법문들으러 절에 가자고 나를 하두 조르는 통에 함께 LA에있는 평화사에 가게 되었다.

지금 그 스님 법명도 잘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 평화사에서 들었던 법문은 나에게 특별한 감흥을 주어 법문을 경청하던 그 순간 마음이 그렇게도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얼마간 미국에 머물면서 LA에 사는 다른 친구들을 이끌고 법회가 열리는 일요일이면 평화사, 관음사등을 찾아 법문을 청해 들었다.



이국만리 타국땅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며 수행자의 숭고한 길을 걷고 있는 스님네들을 보면서 나자신은 그동안 무얼 하며 살았나 반성도 하게 되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며 살리"는 어느 스님의 말씀은 항상 나의 삶의 지침이 되었다. 그래서 여지껏 살아오면서 남에게 해가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않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고 아이들에게도 늘 그렇게 가르쳤다.

한사람의 가수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불자이고 어머니였기에 …,

가수생활 내내 각종 공연, 밤무대등을 다니며 바쁘게만 살아와 주위를 돌아볼 겨를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불자가수회에서 활동한 그간의 시간만큼은 내가 지금껏 행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었다.

해마다 눈이 내리는 명동성당 사거리에서 불자가수회회원들과 어린이 불교합창단과 함께 찬불가를 부르며 음성포교를 하기도 했고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도 했다.

손이 삐뚤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내가 노래를 부르며 공연할 때면 악수를 하기위해 힘들게 힘들게 손을 내민다. 내가 엎드려 손을 쭉 뻗어 악수에 응해줄때 너무나 행복해 미소짓는 그들의 얼굴속에서 나또한 행복함을 느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예전에는 공연을 가면 눈물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그들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줄까 고민하기도 하고 아무리 몸이 아프더라도 공연에서 그들을 만나고 와야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나의 히트곡 '노란샤스의 사나이'를 장애인들과 함께 부를때면 음정 박자 가사가 모두 틀려도 그렇게 신명이 나고 기쁠수가 없다.

이런 보람과 행복감으로 남광수, 김활선, 명국환, 진송남, 장미화씨 등 불자가수회 회원들과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공연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얼마전에는 길음종합 사회복지관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쁘고 보람있었던 일은 얼마전 후배가수인 김세레나가 불교로 개종한 것이다. 카톨릭신자였던 그녀는 평소 나와 돈독한 친분으로 내가 항상 그녀를 만나면 연예인법회에한번 나와보지 않겠느냐고 오랫동안 권유하고 또 권유했었다. 그런 그녀가 지난해 불자연예인 송년법회가 열리는 마포 가든호텔에 말도 없이 나타나 법회에 참여한 것이었다. 그때 어찌나 기쁘고 고맙던지 그녀 스스로가 불자가 되도록 항상 권한 마음으로 그녀를 대했던 결과이라고 생각되었다. 송춘희씨도 나의 이같은 포교를 함께 기뻐해 주었다. 김세레나는 조만간 수계와 불명을 받아 정식으로 불자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일을 계기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떤행사에 참여하더라도 불교포교라는 입장에서 한사람이라도 더 포교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시금 마음먹게 되었다. 불교교리를 많이 알아 설하는 것도 큰 포교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포교는 노래로써 자연스러운 불교와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나의 결심과 신심을 뒷받침해 주는 불자가수회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들은 모두 나의 영원한 도반들이며 불교포교의 억군들이다.이들과 함께 이 생명 다할때까지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못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며 살아가고 싶다.

함께 일할 분을 찾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본부

'건강'은 이제 인류 최대의 관심사이자 국가전략 목표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획기적인 사업을 함께 전개해나갈 뜻있는 몇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한 가족처럼 따뜻한 손을 잡고 함께 일하실 분—꿈과 보람이 있고 생활이 보장되는 우리들의 광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집인원 : 남 10명, 여 5명
•학 력 : 초대졸 이상(불자라면 더욱 좋습니다)
•연 령 : 38세 이상
•대 우 : 고정급 및 수당

주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548-1 계양B/D 6층 11호
전화 : (0343) 49-9949, 41-5071 •FAX : 42-3967

1995학년도 신입생 모집

부산불교예술대학 개강

정덕자 고전무용학원 전통승무, 살풀이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12호 등록



무·료·강·습

▌정덕자 무용가시인 시집
1. 푸념 2. 마음은 춤이다
3. 마음 뿌리 잘내려야 4. 잃으렸던 마음날
5. 마음은 불꽃

■모집기간 : 95년 1월 4일 ~ 2월 28일
■모집인원 : 1백명 선착순
■개강일시 : 95년 3월 10일
매주 화요일 : 고전무용
매주 수요일 : 국악, 판소리, 시조, 민요
■강의 및 실습시간 : 오전 10시 ~ 12시
초빙강사특강
1년 수료



부산불교예술대학
부산시 동래구 연산4동 603-6
☎ (051)866-0826, 861-0535
(011)576-0826

다시 푸는 경서 — 초발심 자경문 (13 · 끝)

主人公 汝值人道 當如盲龜遇木
(주인공아 여치인도가 당여맹구우목이어늘)
一生幾何 不修懈怠
(일생기하인대 불수해태오)
人生難得 佛法難逢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此生 失却 萬劫 難遇 須持十門之戒法
(차생실각이면 만겁 난우니 수지십문지계법하여)
日新勤修而不退 速成正覺 還度衆生
(일신근수이불퇴하고 속성정각하여 환도중생하라)

주인공아, 그대가 사람 몸 받은 것 응당 저 눈먼 거북 나무토막 만난 격인데 한 생이 얼마나 된다고 닦지 않고 게으르리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이번 생 놓치면 만겁이 지나도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모름지기 이 열가지 계법 잘 지녀서 날마다 새록새록 부지런히 닦아 물러서지 않아서 속히 바른 깨달음 이뤄 돌이켜 중생을 제도토록 하라.

我之本願 非謂汝獨出生死大海
(아지본원은 비위여독출생사대해라)
亦乃普爲衆生也 何以故
(역내보위중생야니 하이고오)
汝自無始以來 至于今生 恒常四生
(여자무시이래 지우금생히 항치사생하야)
數數往還 皆依父母而出沒也
(삭삭왕환에 개의부모이출몰야일새)
故 曠劫父母 無量無邊
(고로 광겁부모 무량무변하니)
由是觀之 六道衆生 無非是汝 多生父母
(유시관지컨대 육도중생이 무비시여 다생부모라)
如是等類 咸沒慈趣 日夜 受大苦惱
(여시등류 함몰약취하여 일야에 수대고뇌하나니)
若不拯濟 何時出離
(약부증제면 하시출리리요)

나의 본래 서원은 「네 홀로 생사대해를 뛰어나는 것(깨달음)」을 말함이 아니고 (깨달아) 또한 널리 중생을 위하고자 함에 있나니 어인 까닭인가 하면 그대 스스로 무시이래 금생에 이르도록 항상 사생의 세상을 만나서 (네가지 형태 — 난생 · 습생 · 화생 · 태생 — 로 몸 바꿔 오면서) 수도 없이 가고 옴에 다 부모의 몸을 빌어 드나들었거니.

그러므로 아득한 옛날부터 네 부모가 한량없고 가 없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살피건대 육도의 모든 중생들은 그대의 여러 생에에 부모아님이 없는지라

이 같이 한가지 무리인데 악도에 빠져서 밤낮으로 큰 고뇌 받고 있으니 만약 (이들을) 제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에 벗어날 것인가.

嗚呼哀哉 痛纏心腑
오호애재라 통전심부로다
千萬望汝 早早發明大智 具足神通之力
천만망여하노니 조조발명대지하여 구족신통지력하고
自在方便之權 速爲洪濟之智慧
(자재방편지권하여 속위홍도지지혜하여)
廣度欲岸之迷倫
(광도욕안지미륜이어다)
君不見 從上諸佛諸祖 盡是昔日 同我凡夫
(군불견가 종상제불제조 진시석일에 동아범부니라)
彼旣丈夫 汝亦爾 但不爲也 非不能也
(피기장부라 여역이니 단불위야언정 비불능야니라)

아아, 슬프고 애닯도다. 가슴 아프고 애간장 타는 구나.

천만번을 그대에게 바라노니 어서 빨리 큰 지혜 일으키고 밝혀서 신통력 갖추고, 자재방편 권도로서 속히 만령창과 거친 파도에 지혜의 돛대되어 탐욕의 언덕 미혹에 잠긴 무리들을 널리 건질지어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위로는 제불조사들이 옛날에는 다 나와 똑같은 범부였도다.

제불조사 저들이 이미 장부라면 그대 또한 장부려니 다만 그리되지는 않았을(깨닫지 못했을) 지언정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古曰道不遠人 人自遠矣
(고왈도불원인이라 인자원의라하여)
又云我欲仁 斯仁 至矣 誠哉 是言也
(우운아욕인이면 사인 지의라시니 성재라 시언야여)
若能信心不退則 誰不見性成佛
(약능신심불퇴즉 수불견성성불이리요)
我今 證明三寶 一一戒汝
(아금에 증명삼보하 욥고 일일계여하노니)
知非故犯則 生陷地獄 可不愼歟 可不愼歟
(지비고범즉 생함지옥하리니 가불신여며 가불신여아)

옛 말씀에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멀리하는 것」이라 했다.

또 말하기를 「내가 어질고자 하면(도를 닦고자하면) 그 어짐(도)이 다다른다」하였으니 진실하도다 이 말씀이여. 만약 믿음이 굳어 물러서지 아니한다면 누군들 견성 성불하지 못하리오. 내가 이제 삼보전에 증명하고 하나하나 그대에게 경계하노니 그른 줄 알면서 짐짓 범한다면 살아서 지옥에 떨어지리라.

가히 삼가해야지 안 그런가. 가히 삼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經曰, 玉兎昇初催老像 金烏出沒促年光
(송왈, 옥토승침최로상이요 금오출몰촉년광이로다)
求名求利如朝露 或若或榮似夕烟
(구명구리여조로요 혹약혹영사석연이로다)
勸汝愍勉修善道 速成佛果濟迷倫
(권여은근수선도하노니 속성불과제미륜이리요)
今生若不從斯語 後生當然恨萬端
(금생약부종사어하면 후생당연한만단하리라)

게송으로 말하노라.

옥토끼 오르내려(달이 뜨고 지고 하는 모습 – 세월의 흐름을 말함) 늙음을 독촉하고 금까마귀 드나들며(해 뜨고 지는 것) 세월을 재촉하네. 명리를 구함은 아침 이슬같고 괴롭다 영화롭다 저녁 안개(연기) 흡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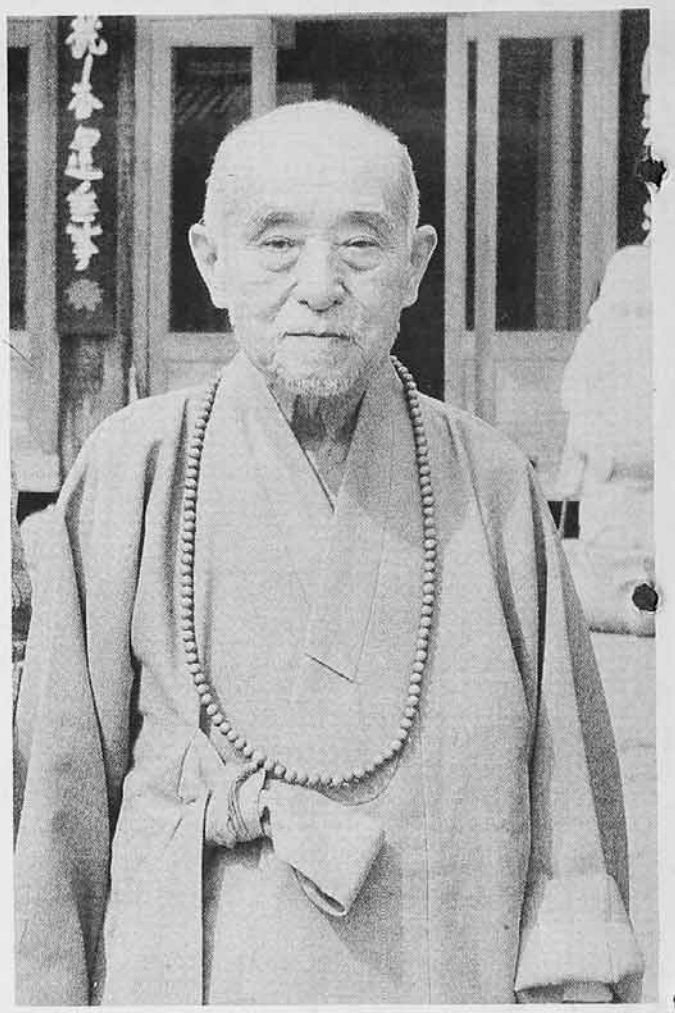
그대에게 은근히 수도하길 권하노니, 어서 빨리 불과 이뤄 미혹중생 제도하라. 금생에 이 한말 따르지 않을지면 후생에 반드시 온갖 한탄 크고 크리.

龍 眼

"열가지 계법지녀 바른 깨달음 속히 이뤄 미혹 중생 제도하라"

지상 법석

'내가 있다' 집착버리면



관응스님
<직지사 조실>

불교는 깨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법문은 그 깨친 법성자리를 해설하는 알입니다. 불 법 승 삼보 가운데 법을 깨달으면 부처님이 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이가 바로 승입니다. 부처님이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사는 자리, 즉 다시 말하면 눈에 가면 보고, 귀에 가면 듣고, 손으로 가면 만지고 나무에 들어가면 나무가 살고 바위에 들어가면 바위가 흩어지지 않는 생명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체를 안 부처님은 따라서 모든 것이 자재한 분입니다. 그것은 즉 몸을 하나로 만들려면 만들고, 천을 만들려면 만들고, 크고 작게, 부(無)와 유(有) 등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지혜가 치성(熾盛)합니다. 이것은 지혜가 세상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휠휠 타오르는 불꽃같이 성하다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은 몸이 단정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32상 80종호로 흔히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 스스로 몸이 단정해집니다. 그래서 신(身) · 구(口) · 의(意) 삼업을 자기 뜻대로 행해도 중생에게 덕이 됩니다. 공자나 예수 같은 성인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빈그릇'이 되어야

법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하였는데 법에 대한 설명은 확실히 드러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라한은 부처님께서 처음 20년간 설한 법에 대해서만 아는 이들입니다. 즉 애욕이 깨진 상태를 완전한 열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묘법연화를 설하시면서 아라한들이 이해하지 못함을 알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 아라한들이 '우리가 40년간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았는데 왜 설하시지 않는가'하고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라한들은 이와같이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증상만(憎上慢)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만을 가지고 나라는 집착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법화경이나 화엄경의 진리를 가르친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컵에 물을 먼저 담아 놓으면 뒤에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밑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을 알기 위해서는 속에 나란 생각을 텅비우고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에 집착해서는 올바른 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에는 돌가루나 흙가루 등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멀쩡하게 보이던 눈이 흐려져 눈이 안 보이거나 헛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가루는 돌가루나 흙가루보다 좋은 것이니까 눈에 붙여도 괜찮겠지 하고 붙이면 역시 안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학문이나 지식이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면 본래 법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집착을 하면 그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돈에 집착을 하면 돈의 종이 되고, 음식에 집착을 하면 몸에 탈이 나게 됩니다. 또 약을 먹으면 몸이 낫지만 거기에 집착하여 과용하면 중독이 되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도 너무 부족하거나 지나쳐서는 안되지만 법도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법 자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즉 한 법에 마음이 집착이 되면 마음이 자재치 못하여 비록 눈을 뜼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비워야만 물건이 보이고 마음을 비워야 바야흐로 성품이 보인다고 한 것입니다.

법계성은 큰 거울과 마찬가지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아름답게 한다고 거기에다 단청을 하면 본성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본성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에 앉은 먼지를 닦아내야 합니다.

삼귀의에 보면 '귀의법 이욕존(歸依法 離慾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체는 일체의 욕심을 떠나 있습니다. 즉 법에는 나라고 주장하고 자기를 도우려는 생각이 없어 모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입으로는 매일 외우지만 실천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바라밀의 수행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밝은 거울에 페인트칠해 놓은 것을 닦아내야 법계성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쌓인 먼지 닦아내야

우리가 지은 신구의 삼업이 낱낱이 티끌 속에 들어 있어 후일 우리가 죽은 뒤 염라국에 가면 죄가 비치는 거울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저울도 있어서 그간의 죄를 무게로 달기도 하지요.

우리 중생의 한마디 소리와 행동까지 진진찰찰의 낱낱 분자에 가서 녹음이 되고 사진 찍힙니다. 음파 · 광파가 모두 파동을 쳐서 내가 밉다는 생각을 한다거나 벌레가 하는 일 등 모든 낱낱의 것에 관하여 아는 것이 곧 화엄의 도리입니다.

천태 지의선사가 법화삼매에 드니까

약력

△ 1910년 6월 15일생.
△ 29년 탄옹스님 은사로 득도.
△ 일본 龍谷大에서 수학.
△ 김용사 강사 역임.
△ 무문관 6년수행.
△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저서로 〈유식론 해설〉등.

佛教聖地巡禮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태국 5일

₩595,000

서울–방콕(2박)–아유타야, 방파인, 수상시장, 새벽사원, 왕궁, 에머랄드 사원, 무암보란, 황금불 사원–파타야(2박)–방콕–서울

· **출발일** : 2月/2, 7, 9, 14, 16, 21, 23, 28 3月/2, 7, 9, 14, 16, 21, 23, 28, 30

대만 5日 ₩595,000	서울–대북–일월담(1박)–고웅 · 불광사(1박)–화련(1박)–대북(1박)–서울 2月/1, 8, 15, 22 3月/1, 8, 15, 22, 29
스리랑카 6日 ₩1,070,000	서울–콜롬보(1박)–아누다라푸라–하바라나(2박)–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1박)–콜롬보(1박)–서울 2月/3, 10, 17, 24 3月/3, 10, 17, 24, 31
미얀마 · 태국 8日 ₩1,400,000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패구–양곤(1박)–방콕(2박)–서울 2月/3, 10, 17, 24 3月/3, 10, 17, 24, 31

新春海外旅行

–최고의 여정 · 최상의 서비스 · 최대의 기쁨–

방콕 · 파타야 5日 ₩68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2月/1, 4, 5, 8, 11, 12, 15, 18, 19, 22, 25, 26 (₩715,000) 3月/1, 4, 5, 8, 11, 12, 15, 18, 19, 22, 25, 26, 29
방콕 · 푸켓 5日 ₩795,000	서울–방콕(1박)–푸켓(3박)–서울 2月/2, 4, 5, 9, 11, 12, 16, 18, 19, 23, 25, 26 3月/4, 11, 18, 25 (₩725,000)
동남아 3국 5日 ₩745,000	서울–싱가폴(4박)–바탐 · 조호바루–서울 2月/1, 3, 4, 6, 8, 10, 11, 13, 15, 17, 18, 20, 22, 24, 25, 27 3月/1, 3, 4, 6, 8, 10, 11, 13, 15, 17, 18, 20, 22, 24, 25, 27, 29, 31 (₩655,000)
방콕 · 푸켓 · 싱가폴 6日 ₩895,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싱가폴(2박)–서울 2月/2, 7, 9, 14, 16, 21, 23, 28 3月/7, 14, 21, 28 (₩795,000)
하와이 5日 ₩679,000(일급) ₩765,000(특급)	서울–호놀룰루(3박)–기내(1박)–서울 2月/1, 2, 4, 8, 9, 11, 15, 16, 18, 22, 23, 25 3月/1, 2, 4, 8, 9, 11, 15, 16, 18, 22, 23, 25, 29, 30
미국 서부 버스 7日 ₩799,000	서울–LA(1박)–홈덱스텝(1박)–라스베가스(1박)–후레스노(1박)–샌프란시스코(1박)–기내(1박)–서울 2月/3, 6, 10, 13, 17, 20, 24, 27 3月/6, 13, 20, 27
유럽 5개국 10日 ₩1,790,000	서울–영국–독일–스위스–이태리–프랑스–서울 2月/2, 9, 16, 23 3月/2, 9, 16, 23, 30
사이판 4日 ₩735,000	서울–사이판(3박)–서울 2月/2, 3, 5, 9, 10, 12, 16, 17, 19, 23, 24, 26 3月/2, 5, 9, 12, 16, 19, 23, 26, 30 (₩645,000)
괌 4日 ₩735,000	서울–괌(3박)–서울 2月/2, 9, 12, 16, 23, 26 3月/2, 5, 9, 12, 16, 19, 23, 26, 30 (₩645,000)
호주 · 뉴질랜드 8日 ₩1,745,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로토루아(2박)–오클랜드(1박)–시드니(2박)–서울 2月/2, 4, 5, 7, 9, 11, 12, 14, 16, 18, 19, 23, 25, 26, 27, 28 3月/2, 4, 5, 7, 9, 11, 12, 14, 16, 18, 19, 21, 23, 25, 26, 28, 30 (₩1,545,000)

新婚旅行

❝새로운 출발, 허니문 전담팀이 권해 드리는 일곱색깔 무지개 여정❞

방콕 · 파타야	5日	– ₩63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푸켓	5日	– ₩740,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방콕(1박)–서울	
대만(화련)	4日	– ₩520,000
	서울–대만(화련) 3박–서울	
괌	4日 5日	– ₩670,000 – ₩785,000
	서울–괌(3박, 4박)–서울	
사이판	4日 5日	– ₩670,000 – ₩785,000
	서울–사이판(3박, 4박)–서울	
하와이	5日	– ₩790,000(일급) – ₩890,000(특급)
	서울–하와이(3박)–기내(1박)–서울	
호주	5日 6日	– ₩1,109,000 – ₩1,149,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 2박)–시드니(2박)–서울	

여행조건 10人 이상 출발(허니문은 1쌍이라도 매일 출발), 전 일정 식사 제공,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허니문은 특급호텔), 해외 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현지 가이드 동행

특전 2개월 전 예약시 5% 할인, T-Shirt, 모자 증정, 축하 와인, 과일바구니 제공, 해산물 부페 제공

21세기를 지향하는
불교 성지 순례 전문 (주) 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 817 호
☎ 732-3200 (代)

지상 법석

우주 전체가 바로 내것

'육바라밀 수행'으로 마음속 먼지 제거
"트인 사람은 티끌서도 일체를 보게돼"

부처님이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사는 자리, 즉 다시 말하면 눈에 가면 보고, 귀에 가면 듣고, 손으로 가면 만지는 생명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체를 안 부처님은 따라서 모든 것이 자재한 분입니다. 그것은 즉 몸을 하나로 만들려면 만들고, 천을 만들려면 만들고, 크고 작게, 무(無)와 유(有) 등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옛 모습 그대로 설법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눈이 뜨이면 옛날 것도 다 보이고, 미래의 것도 다 바라볼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은 경지가 되려면 다라니를 공부해야 합니다.

다라니에는 티끌 하나라도 그 속에 시간과 공간의 어떠한 것이든 모두 비쳐보일 수 있는데 이를 사사무애(事事無碍)즉, 걸림이 없는 경지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사물에는 작은 티끌에 조차 삼세제불의 과거·현재·미래 만상이 다 들어 있으며, 일체 중생의 하는 바가 다 들어 있고, 일체 기세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 하여 사사무애라고 하지요.

트인 사람은 티끌 하나를 보아도 일체를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알 수 없는가. 그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인해 본디 맑고 밝은 마음자리가 바뀌고 만 것이지요.

걸림이 없는 경지

옛날 중국에는 사람이 죽어 묻힐 때 그 사람이 평소 소중히 여긴 물건과 노비, 첩을 함께 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를 순장(殉葬)이라고 하는데, 귀한 목숨들을 재물과 함께 묻고 말았던 것입니다. 죽으면서까지 허황되게 욕심을 냈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생매장도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진나라 때 위무부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일흔이 넘은 나이에 갓 스물 넘은 처녀에게 새장가를 갔답니다. 그에게는 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네 젊은 어머니의 청춘이 불쌍하니 좋은 자리를 보아 시집 보내달라고 이르곤 하였지요.

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 병석에 누운 뒤로부터는 죽은 다음에도 함께 살고 싶다는 욕심으로 아들에게 순장을 해달라고 하였답니다. 후에 위무부는 죽었고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옳게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함께 순장해 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마친 뒤 젊은 어머니를 적당한 인물에게 시집 보내주었습니다. 이웃에서는 모두 부모의 유언을 따르지 않은 불효막심한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였는데 위과타고 달려오던 적군은 모두 묶인 풀에 말발굽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이쪽편이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날 밤, 꿈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나기에 누구인가를 물으니, 시집 보낸 계모의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옳게 지켜주어 내 딸을 구해주었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이번 기회에 도와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결초보은(結草報恩)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하겠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어떤 이가 여의주를 얻었습니다. 원하는 바는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구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뒤 두 자녀가 서로 양보하다가, 바다에서 주운 것이니 다시 바다에 갖다두자며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또 하나의 여의주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욕심을 버리면 복을 얻는데 욕심, 내 생명이 하나 따로 있다고 하는 집착을 버리면 우주전체의 생명을 만나게 되고 우주가 자기의 것이 될 때를 지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 합니다.

우주전체의 법성인 생명은 하나인 줄 모르고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식(識)이라고 합니다. 이 식 때문에 안으로는 육근이 생기고 밖으로는 육진이 생겨서 아연히 18계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으로 육진 경계를 따라서 무덩망상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진여는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나무에 들어가면 나무가 살고, 벌레에 들어가면 벌레가 살고, 사람에 들어가면 사람이 사는 그 생명체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성품은 하나라는 것이지요.

만물이 서로 친구

우리는 마음을 흔히 허공에 비유하곤 합니다. '허공과 같다'라고 표현하며 이는 허공보다 더 묘하다는 의미입니다. 허공과 비슷할 뿐 허공과 마음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한 선사가 '너도 불성이 하나 있고 나도 불성이 하나 있다'고 말하면, 자기도 그렇구나 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요즘의 풍토입니다. 이것은 옳게 배우는 자세가 아니라 옛부터 가지고 있던 버릇이며, 불법문중에 들어와서도 달라진 것이 없게 됩니다. 결국 불법의 속 깊은 이치는 끝내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경전에서 '우주의 생명체인 불성은 하나'라고 했으나,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님을 모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조실스님인 마조스님과 청년 수좌 백장스님이 어느 강가를 거닐때의 이야기 입니다. 마조스님이 기러기떼가 훨훨 나는 모습을 가리키며 "저 새가 보이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보입니다" 수좌가 대답하자 한참 지난뒤에 "지금도 그 새가 보이는가?"를 다시 물었고 "지금은 날아가서 안 보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조스님이 백장스님의 코를 잡아비틀었고, 백장스님은 "아야!"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마조스님이 "여기 그대로 있는데 어디로 날아갔다고 하느냐?"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날개짓 하며 나는 새의 기운과 자기 코의 아픈 기운이 두 가지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는 둘이 아닙니다. 한 기운이 눈에 가면 보고, 귀에 가면 듣고, 기러기 속에도 들어가고, 사람속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盡日惺惺坐
(진일성성좌)
乾坤一眼中
(건곤일안중)
有朋來草屋
(유붕래초옥)
明月與淸風
(명월여청풍)

진종일 화두가 성성하게 앉아 있노라니 / 하늘과 땅이 한 눈 속에 있어라 / 벗이 초옥을 찾아오니 /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로다.

의상조사 법성게에서도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이라 하여 우주법체는 하나이지 둘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천지 대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된 자리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을 노래한 게송이 있습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⑬

불교의 의료정신

김 성 규

의학이 육신의 병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불교는 마음의 병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 병을 다스리는 근본 재료는 자비심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탐욕스러운 마음과 화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병의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데 자비심은 이러한 사악한 마음을 다스려 근본적으로 병의 원인을 제거해 버림으로 다음 생에서도 건강한 육신과 정신을 갖고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분율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어느 때 염부제에 8만 4천 성이 있었고 성에는 50억이나 되는 마을이 있었고 외곽에는 6만의 마을로 둘러쌓여 있었다. 이 때 한 병자가 있어 일체시왕을 찾아와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였다. 왕은 염부제에 있는 의사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의 병에는 어떤 약을 주어야 낫겠는가?"



여러 의사들이 진찰을 한 뒤 왕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의 병에는 어떤 약도 효험이 없습니다. 다만 보살만이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왕은 나서 물었다.

"어떤 병이길래 보살 밖에 안된다는 것인가?"

의사들이 왕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병에는 자비심이 있는 보살의 생살과 생피를 먹고 29일이 지나면 병이 저절로 낫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일체시왕은 시자에게 칼을 가지고 오게 하여 자신의 비장의 살을 베어 다음 게송과 함께 그 병자에게 주었다.

일체의 모든 산과 바다를 나는 무겁게 보지 않는다.
도무지 고치는 바 없는 자를 무겁게 본다.
바른 말을 듣고도 고치지 않는 자는 문둥병의 과보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벗들이여, 마땅히 보은(報恩)을 생각할지니라.

29일이 지난 뒤 왕은 의사를 시켜 그 사람의 병을 확인하게 하였더니 병자가 완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때의 일체시왕이 바로 나(부처님)의 전생이며, 그 때의 병자가 지금의 데바달다이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에 가득찬 얼굴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깨끗한 화선지에 더러운 물이 묻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할 수 없듯이 데바달다의 나쁜 성품은 전생에서도 이 생에서도 마찬가지구나. 벗들이여, 잘들어라. 이 병을 진정으로 낫게하는 것은 끝없는 자비심 밖에 없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불교의 의료정신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의 변화를 잘 판별하여 병의 종류와 병의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에 대한 치료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이므로 우수한 의술을 배우고 연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병자를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금광명최승왕경〉에서도 자비심으로 병자를 대하되 어떠한 경우라도 재물을 탐내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정당한 행위에 대한 댓가를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선생경〉에 말하기를

"탐욕·성냄·어리석음은 마음의 병 자비심으로 치료"

"만약에 병자가 가난하고 재물이 없으면 의사는 병의 처방을 가난한 사람의 능력에 맞는 것으로 할 것이며, 만약에 병자가 재산이 많으면 여러가지 탕약을 권하며 그 사람의 능력껏 병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라."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분수에 맞는 처방과 치료를 주장하고 있어서 병들어 있는 환자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주지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똑같은 치료를 시술하는 것이 가장 자비심이 많은 인간에게 풍부한 치료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분에 맞지 않는 치료는 환자 자신 뿐만아니라 가족에게 까지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거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것이다.

〈선생경〉에 또 말씀하시기를

"또 병자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약이나 식품을 요구할 때에는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라."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이해 시킴으로써 정신적으로 안정을 가져와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임종에 가까운 환자에게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병이 들었으며, 그 병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고 환자 스스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도록 주위에서 도와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처방일 것이다. 결국 의료행위는 생명에 대한 외경(畏敬)이 없으면 기술에 불과한 것임을 부처님의 자비심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영남대 의대교수〉

정신·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산제 복용·기아·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엄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염불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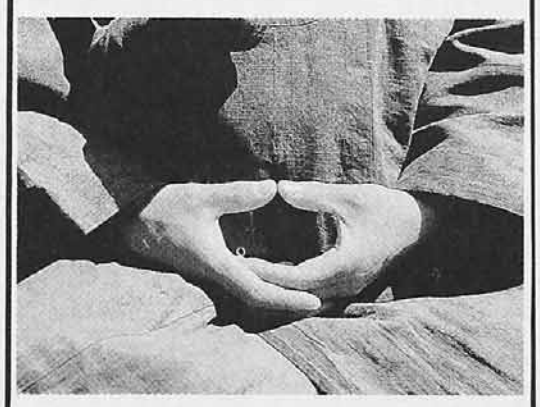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禪觀斷食)
가 이 드 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단식으로 효과보는 병

-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등 신경성 제증상
- 암, 중풍, 혈압, 당뇨,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
- 위장병, 변비, 간장병, 천식, 디스크, 신경통
- 축농증, 피부병, 부인병, 성병, 악물중독 외

■ 수련장: 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용림선원
■ 안 내: ☎ (0593)34-1115~6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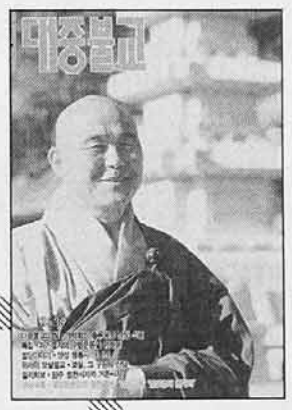
회원모집: 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 735-6795 · 6796 / FAX (02) 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월간 〈대중불교〉를 만나십시오"

수행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도반은 필요합니다.
〈대중불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법에 입각한 신행운동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불자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과 역할을 끊임없이
모색해온 불교정론지 〈대중불교〉가
이제 수행운동을 함께 펼쳐갑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과 보람으로
이끌어줄 대중불교!
지금 당장 전화로 신청하세요!



불교방송교재
'경전공부'
'교리강좌'
'불교영어 한마디'를
권말부록으로
발행합니다

구독문의: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월간〈대중불교〉
전화: (02)773-5731, 752-7047 / 팩스 (02)771-6796

고은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14

제물포를 찾아서

그림 · 최규일

그들이 배안에 물이 드는 것을 몇바가지 퍼낸 뒤 어리굴 개펄에 배 밑창이 파묻힐 만큼 고정시키고 물에 발을 디디자 썰물때의 개펄의 게들이 재빨리 도망쳤다.

우녀에게는 그 게들이 "웬 인간들이 우리 구멍들을 짓밟아 메웠느냐"하고 항의하는 소리와 "헤헤헤 너희들이 아무리 이 땅덩어리를 다스리고 있다해도 다음 세상은 우리가 다스릴 거야. 그때는 너희들이 여기 와서 썰물 개펄이나 차지하거라"라는 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빈 개펄의 굳은 지대를 걸어가면서 영문 모르게 얼굴을 붉힌 것은 바로 그런 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담은 그런 우녀의 사정을 통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우녀가 게들의 말에 화답하는 뜻으로 "하기야 왕도 정승도 어찌 씨가 따로 있더냐. 너희들이 나였고 내가 너희들 중의 어떤 놈이겠지." 라고 한 독백을 그냥 지나친 것이다.

그들이 잘 다져진 것 같은 개펄을 지나서 모래밭에 들어섰을 때 그 모래밭 마른 갈대숲 한쪽으로 상복(喪服)입은 아낙네와 떠꺼머리 총각이 서로 사이를 두고 맞서 있었다. 대번에 뜨르르 짐작되는 바는 이 부근의 바닷가 언덕에 지아비를 묻은지 얼마 되지 않은데 혼자 지아비 무덤이라도 살펴보고 싶어서 나온 청상과부와 그녀의 뒤를 밟아 온 이웃마을의 대담한 총각이었다.

그러나 청상과부는 소리를 치려하다가 행여 저쪽 언덕에 있는 무덤 속의 지아비가 들을까보아 입을 꿰맨듯이 꼭 다물고 있었다. 그 낯 익은 총각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눈을 치뜨고 있어야 하였다.

이 광경에 인담이 달려 가려는 것을 우녀가 막았다. 낮게 말하였다.

"놔두시오. 스스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저 총각 녀석이 틀림없이 무슨 짓거리를 할 것 같소."

"아닐 것입니다."

이들의 몇마디 속삭이는 소리가 얼핏 그쪽 갈대밭 너머의 귀에 스쳤는지 총각이 갑자기 긴장된채 뒤 돌아다 보는 것이었다.

한동안이 지나갔다. 갈대밭에 바람이 일어났다.

그바람 속으로 총각의 말이 들리는 것이었다.

"나는 꼭 유동댁 거기를 데리고 이 고장을 떠날 작정이여."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지아비를 묻은 죄인입니다. 제가 어디를 떠난단 말입니까. 지아비는 죽었거나 살았거나 언제까지나 지아비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리 작작 하오. 지금 세상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곳에만 살게 하지 않는다 그말이오.…웬만한 사람들은 남녀가 눈맞아 타관으로 저 강원도나 함경도 산중 화전(火田)살이하러 떠나는 것을 모르시오? 여기 있어보아야 병들어 저승 갈 일 밖에 없소. 거기의 낭군도 벌써 저승사람이 아니오?… 여기 있어보아야 봄 나물 나기 전에 허기져 쓰러질 일 밖에 더 무엇이 있오?"

떠꺼머리는 머리 딴 것이 바람에 더 헝크러지며 마구 이 말 저말을 되는대로 내뱉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부는 그런 입에 벙어리가 되어있을 수밖에 없었다. 바람이 거세어졌다. 무슨 대꾸가 나오겠는가.

총각만이 혓바닥이 펄펄 살아서 말을 이었다.

"보름날밤 칠포 솔밭으로 나와요. 이제부터 살 곳을 찾아 떠나야 하니까."

보름날이라면 며칠 남아 있지 않았다.

여자는 지아비를 묻어 장사지낸지 10일도 채 안되는 처지였다. 차라리 핏줄을 남겨 두지 않을 것이었다. 도대체 시집 온지 2년만에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아비의 급사(急死)라 시집 가권(家眷)들의 눈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상을 당한 쪽이 죄인노릇을 하는 것이 오랜 전래의 풍속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풍속을 넘어서는 중죄인이 되어 버린 그녀였다.

아침 나절에 먼 데 출타할 일이 있어서 두루마기를 입다가 갑자기 코피를 한 바가지 쏠으면서 쓰러진 그대로 숨이 끊어진 것을 밤중의 이불속에서 복상사라 한 것이다. 사실인즉 지아비는 성불구였음에도.

그녀는 그런 빈 손과 같은 지아비를 속절없이 땅에 묻고 나서 더욱 죄어드는 압박에 이길 수 없었던 터라 입에 칼을 물고 자진할 생각을 굳힌 나머지 마지막으로 무덤에나 한번 와 보기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간 사이에 멱서리에 주섬주섬 시든 능금과 밤 대추 곶감 따위를 담아 이고 여기에 왔던 것이다.

그런 비장한 성묘길을 뒤따라 나타나 지아비 무덤가로 가는 길을 가로막은 이웃마을 떠꺼머리가 도망치기를 강요하는 지경이었으므로 새로운 기로(岐路)에 들어서게 되었다.

"먼저 가요."

라고 총각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때에야 청상과부는 멱서리에서 쏟아진 것들을 그대로 두고 빈 멱서리만 들고 일어났다. 누런 소복의 무명치마가 유난히 바람에 펄럭거렸다.

인담과 우녀가 모래밭에 들어섰을때 상복입은 아낙네와 떠꺼머리 총각이 서로 사이를 두고 맞서 있었다

머리를 어루만진 다음 그녀는 절망적으로 발걸음을 떼어놓았다.

"꼭 나와요. 거기는 내 여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여. 나오지 않으면 내가 거기 한테 갈 것이니까…아니… 나는 이제부터 거기를 밤이나 낮이나 살핌 작정이니까"

그녀가 간 뒤에도 떠꺼머리 총각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벌렁 쓰러져 갈대줄기 사이로 펼쳐져 있는 하늘을 누워서 쳐다보고 있었다.

"아앗!"

하고 그는 뱃구리에서 꺼내는 큰 소리를 질러댔다. 갈대들은 바람에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드디어 그 사내의 떡 벌어진 몸집이 일어나서 그곳을 떠났다.

우녀가 인담의 어깨죽지를 쳤다.

"망상(妄想) 버리고…우리도 떠납시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서산까지 가는 육로 한나절 내내 입에서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다.

서산에서 당진 합덕을 거쳐 온양에 이르는 동안 배에 집어넣은 것도 없거니와 입에서 나온 말도 없었다. 그야말로 우녀가 말한 바 포옹의 힘으로 거기까지 온 것인가. 더구나 그들은 기막힌 사연으로 전개될 남녀의 수작을 목격하는 동안 온몸이 얼어붙는가하면 뜨겁게 달아올라야 하는 체험으로 청상과부와 떠꺼머리를 대리(代理)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인내가 좀 풀어지는 상태에서 그들의 걸음걸이는 좀 느려지게 된 것인지 몰랐다.

칠포의 어부에게 공배를 내라해서 어디만큼이라도 뱃길을 갈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애초의 뜻을 저버린채 그저 걸음만 재촉하게 된 것이 이런 육로인 것이다.

온양에서 평택까지의 횅덩그렁한 들판은 그들의 걸음을 무척이나 더디게 하였다. 남자인 인담쪽이 벌써 노독(路毒)이 올랐는지 걸음이 느려졌다.

평택의 얕으막한 언덕을 바라보면서 안성천 냇가의 한 납작집에서 찬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

탁발승에게 시주하지 않는 별로 흉년이 세번이나 들었다는 이 지역 헛 소문 때문인지 한쌍의 객승에게 그 찬밥 대접은 그 집으로서는 융숭한 것이었다.

쉬는 것은 짧아야 한다. 너무 오래쉰 뒤에는 걸음걸이가 여간 굳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 여행조차도 우녀가 이끌고 인담은 따르는 처지로 되었다.

그들은 몇마디 주고 받은 사소한 말 이외는 어떤 정다운 대화나 수행의 결실인 고답적인 문답도 없이 제물포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배가 고픈 여행이었던 것이다.

그런 사정과 상관없이 제물포에는 여기저기 학(鶴)이 많이 보였다. 소나무마다 하얀 학들이 날개를 접고 앉아 있는 것이나 바닷바람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학의 품위있는 비상(飛翔)이나 다른 고장의 풍경에서는 드문 일이었다.

두사람은 그런 솔밭으로 된 언덕을 넘어갔다. 난데없는 포졸 세사람이 급히

그때 우녀가 나섰다
"도둑질이라면 큰도둑입니다
부처를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달려와서 그들을 제지하였다.

"너희들은 어디서 오는 것들인가?"

"네 충청도 중이올시다. 저 아래 객주에 볼 일이 있어서입니다."

"중이 객주에는 무슨 볼일인가?"

포졸들이 두 사람의 몸과 흡죽한 걸망속을 거칠게 뒤져보았으나 별다른 것이 담겨져 있을 리 없었다. 뒤진 자는 뒤진 보람이 없을 때 화를 내는 법이다.

"너희들이 중이냐? 아니라면 두 년놈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도둑질을 하는 길이렸다?"

그때 우녀가 나섰다.

"도둑질이라면 큰 도둑질입니다. 부처를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어이쿠!"

하고 한 포졸이 놀라는 척 하였고 한 포졸은 그 포졸을 잡아다넣다.

"어서 가세. 놈들을 영영 놓칠지도 모를 일이네."

그들이 쫓고 있던 대상을 떠올리게 되자 두사람 따위는 검불로 여기는지 "어서 가보아"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다.

인담은 제물포 저자에 들어서자 그때까지 그의 머리속에 잠겨있던 어리굴 개펄 갈대밭의 청상과부와 떠꺼머리가 주고받는 말들이 뒤늦게 지워졌다. 그만큼 이곳 저자는 시끌벅적하였다.

있는 것은 활기였고 없는 것은 이 세상의 온갖 죽음인가. 심지어 저자에서 자주 퇴박을 맞는 이런 거지들조차 내지르는 비명이 우렁찬 것이었다.

여기에 접어들자 인담이 앞장서서 객주를 물었다. 객주는 덩그렇게 높은 2층짜리 기와집채가 앞채였고 2층에 잇대어진 회랑의 창고들이 넓은 안마당을 이루어놓고 있었다.

"객상주인(客商主人) 어른을 찾아뵈오려 왔습니다만"이라고 서기(書記)에게 통기하였다.

"무슨 일인가?"

"네 갚을 것이 있습니다."

"갚을 것이라… 그렇다면야 어서 만나뵙게 해야지."

그 서기의 뒤를 따라 2층짜리 높은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현관에 해당한 것이어서 그들은 몇개의 거간(居間)길의 중문을 지나서 그 깊은 안채에 가서야 멈추었다.

FM 89.9 MHZ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FM 89.9 MHZ

FM 89.9 MHz

불교부산방송 2월 1일 개국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불교부산방송이 2월 1일 개국합니다.
불교부산방송 설립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국의 2천만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불교부산방송이 개국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동참해주신 부산, 경남지역 불자님들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부산,경남지역 불교발전의 새지평을 열어갈 불교부산방송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있으시길 바라며
아울러 95년 3월 1일 개국하는 불교광주방송에도 계속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불교방송 임직원 모두는 부처님의 법음을 널리 전하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교방송 임직원 일동

■불교부산방송 후원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은행명	구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129-01-0000-650	불교방송
농협중앙회	905-17-001278	불교방송
농협은행	001-04-0130-761	불교방송
부산은행	020-13-000218-6	불교방송
외환은행	050-13-25048-2	불교방송
한일은행	041-173791-13-201	불교방송

※ 후원성금 문의전화 : 051-644-5114, 5221

BBS 불교부산방송

부산 동구 범일동 833-13 보생빌딩 10, 11층 전화 : 051-644-5114 팩스 : 051-644-5233

서울FM101.9㎒ 부산FM89.9㎒ 광주FM89.7㎒

불교와 설풍속

자비광명기원 세배하는 날

스님 마을돌며 권선·길운 염불

불자들 사찰머물며 삼보공양

설날은 새해의 첫날로 묵은해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날이다.

설날에는 가족의 어른들과 함께 온가족이 모여 조상을 봉양하고 뿌리를 재인식하는 차례를 지낸다.

설날 아침에 드리는 차례의식은 옛날부터 지켜온 조상공경의 미풍양속으로 불교의 '다례'에서 유래된 것이다(삼국유사). 원래 차를 올리던 것을 조선시대 이후 유교의 영향으로 술과 고기를 올리게 변모되었으나 그 명칭만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차례'로 전해져 왔다.

설날이 밝아오면 사찰에서는 새벽예불을 시작으로 전 대중이 함께 부처님을 비롯한 삼보와 호법신중에게 세배를 올려 새해가 왔음을 고하고 뒤이어 큰스님들께 차례로 세배 드리는 세알의식을 치렀다. 세알을 함으로써 삼보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새해에도 함께 할것을 기원했다.

설날에 행해졌던 의례 가운데 산사에서 수행하던 스님들이 마을에 내려와 법고를 치며 집집마다 돌면서 권선. 염불을 행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때 속인들은 스님들에게 떡과 돈을 보시하고 승병이라고 부른 스님들의 떡을 서로 바꾸어 먹으면 일년내내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삼보를 봉양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위해 선달 그믐부터 정월 초하루까지는 마을의 불자들이 사찰에 머물면서 스님들께 돌아가며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불공을 드리는 풍습도 있었다.

이같은 풍습은 버어마, 스리랑카 같은 국가에서는 오늘날도 행해지고 있다.

설날에 행했던 불교와 관련된 세시풍속에는 불교의 참회방법을 수록한 〈점찰경〉에서 유래한 6개 또는 3개로 된 주사위모양의 10면 목륜상을 던져, 나타나는 표시에 따라 참회하고 수행할것을 다짐하는 것이 있었다.

이와함께 서산대사가 고안했다고 전해지는 성불도 놀이가 있다. 윷놀이판과 아주 비슷한 이 놀이는 육각형의 나무세개에 '나무아미타불' 여섯자를 각 모에 써놓고 이를 던져 위치를 찾는 방법이다. 육각 나무윷을 던지기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던진후 육면에 적혀있는 숫자대로 자기의 위치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초의 대표적인 민속으로 스님들이 마을굿의 제관으로 참여해 마을과 절에 길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기도 했으며, 절입구의 서낭이나 장승앞에서 정초에 스님들이 성황제를 지내 질병을 막고 절의 융성과 화합을 기원했다고도 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전통세시풍속들은 오늘날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 민족전통문화 전승에 불교계가 더욱 노력해야 할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은〉

설날아침에 듣는 동화



그림 이준석

오늘은 바로 우리들의 설날, 음력 정월 초하루입니다.

훈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설빔을 입고 어른들을 따라 차례를 드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작은집 식구들과 막내고모, 대구에서 근무하는 삼촌 등 식구들이 모두 훈이네 집에 모여 모처럼 온집안이 떠들썩합니다.

"자, 한 살씩 더 먹었으니까 어서 성묘 다녀오자꾸나"

차례를 지낸 뒤 떡국을 먹고 나자 훈이 할아버지가 두루마기를 입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설날 성묘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는 인사를 조상님들께 드리는 매우 뜻깊은 풍습입니다.

성묘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새해 인사라면 세배는 살아계신 어른들께 드리는 새해맞이 큰절이라 할 수 있지요. 세배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이루시길 기원합니다하는 뜻으로 드리는데, 어른들은 이때 맛있는 음식이나 세뱃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하시지요.

"훈이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새해의 인사를 나누는 것을 덕담이라고 합니다. 덕담은 새해를 맞아 서로 복을 빌고,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뜻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인사법 입니다.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설달 그믐날 밤에 골목을 다니며 "복조리 사세요"하고 복조리를 파는 풍습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리를 사서 한데 묶어 방이나 부엌에 매달아 두면 일년 내내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복조리라고 부릅니다.

설에는 이밖에도 널뛰기와 윷놀이, 훈이가 좋아하는 연날리기 등 우리 겨레의 재미있고 유익한 놀이가 많이 전해지고 있지요.

"훈이야, 오늘은 청룡사 부처님이 심심하시겠다"

세배를 드리고 나자 갑자기 삼촌이 일어나며 훈이네 뒷산에 있는 절에 가자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삼촌, 부처님도 세뱃돈 주실까요?"

"하하하! 부처님은 세뱃돈보다 더 좋은 걸 주실거야."

청룡사 가는 길에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까치가 미류나무 가지에 앉아 새해 인사를 합니다.

이정범〈불지사 출판기획부장〉

"삼촌, 부처님도 세뱃돈 주실까요" 훈이는 절을 향해 나서며…

이근후 건강칼럼 〈13〉

술

약인가 독인가

한해가 저무는 세모나 새해를 맞는 신년초가 되면 술을 마실 기회가 많아진다. 핑계없는 술이 있을까만은 연말연시를 맞으면 핑계를 더 뚜렷이 대면서 술을 마실수가 있다. 한 지도층인사가 피로연의 술에 취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무고한 시민을 죽게하고 여러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얼마전에 일어났다. 술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건이며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이다.

최근 주류업자들이 세계보건기구의 말이라면서 가벼운 술은 오히려 몸에 좋다며 선전을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연이어 나온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로 그 선전을 일축했는데 술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술을 마시지 않는 인간으로부터는 사리분별을 기대하지 말라는 예찬론이 있는가 하면, 술은 범죄의 아비요 더러운 것들의 어미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물론 술을 경직되게 한가지 설명만으로 이원론적인 해답을 얻기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근세의 철학자 럿셀은 이렇게 말했다. "음주는 일시적인 자살이다. 음주가 갖다주는 행복은 단순히 소극적인 것, 불행의 일시적인 중절에 지나지 않는다"고.

법화경에 보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도 했다. 영국의 속담에도 술은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술은 배신자라고 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친구가 되지만 나중에는 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신은 근신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도 했다.

의학적으로 술로 인한 정신과적인 질병에는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 알코올 중독, 알코올 금단, 알코올로 인한 환각증, 섬망, 건망성장애, 기타 알코올로 인한 치매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이름이 붙게된다.



약주는 흥 돋우지만 과음은 금물

그 원인은 한결같이 알코올을 마시는 것으로부터 유래된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1인당 술소비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피해도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다.

"건강을 축하합시다" 흔히 건배라는 말로 술잔을 서로 마주치면서 흥을 돋구지만 기실 건강을 축하할 일이 아니고 스스로 만성적인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나 같다.

〈이대 신경정신과 교수〉

만화 法句經 법구경

마음의 장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이 향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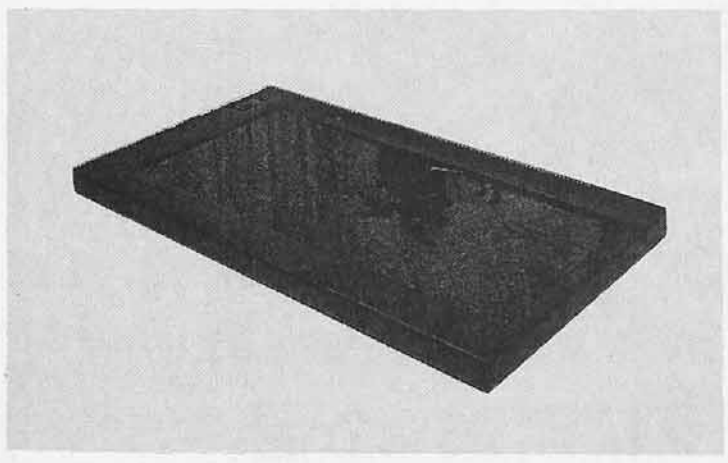
우리 시대 최고의 수맥방지 온돌침대

병이 있는 사람은 병세가 호전되거나 치유되고 허약한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태어난다

전기용품 Q마크 획득
품질보증
본상품은 품질시험검사 전문기관인 삼연구원에서 보증함
한국건기전자시험연구원
EMI

돌 자연석
인간의 몸은 소우주 자연의 기를 원한다





전국에서 난치병의 개선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로 상담하여 주세요

왜 많은 분들이 **수맥방지 온돌침대**의 효능에 만족하실까요?

■전화 주시면 계약금만으로 바로 설치해드립니다.
고객감사 현금가 10개월 할부 단행!!
— 기간 1995. 1. 26까지 —

생산자 — 총판 — 대리점 — 백화점 — 소비자

•기존 사용하시는 침대를 수맥방지 돌침대로 개조해 드립니다.

■현대인의 질병 그 원인이 수맥(水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이 수맥과 콘크리트 벽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라듐방사체와 독소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맥방지 돌침대는 이러한 독소와 수맥을 방지하고 실내의 유해한 공기를 정화하여 편안한 수면과 건강을 지켜주는 돌찜질기입니다.

■온돌침대는 확실한 효과로 선택하십시오!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통증의 경감 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교통사고 후유증 등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피로회복·불면증·비만·미용 등에 효과 있습니다.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건강상담실 운영



◇ 스테디 불서는 깔끔한 문장과 구도의 자세로 현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스테디불서 23종

도서명	지자	출판사	발행년도	인쇄	판매	분류
법구경	김달진 역	현암사	65년	10쇄	3만	경전
아함경이야기	민족문화추진회 이원섭 역	현암사	76년	18쇄	3만4천	〃
보현행원품 강의	한역	불광	89년	15쇄	2만5천	〃
육조단경	혜능	원광	75년	16쇄	3만1천	〃
불교성전	권탄회	동국역경원	72년	44쇄	13만2천	〃
생의 의문에서 그해결까지	공역	불광	81년	19쇄	3만5천	입문교리
불교를 알기쉽게	종법	원음	84년	34쇄	3만5천	〃
선종영가집	영가현각	불광	77년	8쇄	1만5천	선·명상
선관책진	운서주광	불광	81년	9쇄	1만7천	〃
선으로 가는 길	석지현	일지사	75년	23쇄	2만5천	〃
원효사상	이기영	홍법원	67년	6쇄	1만	불교사상
실천적 불교사상	법륜	정토	86년	7쇄	5만	〃
서있는 사람들	법정	샘터	78년	67쇄	1백만	수상집
텅빈 충만	〃	〃	89년	47쇄	70만	〃
산방한담	〃	〃	83년	43쇄	6만5천	〃
무소유	〃	범우사	76년	58쇄	60만	〃
사랑하여 용서하여	함봉	일일	83년	56쇄	9만	〃
만다라	김성동, 푸른숲	푸른숲	79년		50만	소설
우담바라	남지심	고려원	87년	56쇄	43만2천	〃
소티르타	현서	범우사	83년	10쇄	7만5천	〃
불교사전	운허	동국역경원	61년	28쇄	5만6천	사전
불교학 대사전	권탁부	홍법원	88년	7쇄	1만	〃
성훈따주기	성훈	우리출판사	86년	30쇄	4만	건강

스테디 불서

경전·수상집·소설 등 종류 "가지가지"

'서있는 사람들' 백만부 팔려 꾸준한 인기
바른 깨달음 안내등 정신적 지표 역할 "톡톡"

지난 90년 이전에 발행돼 최근까지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불서들은 어떤 것들이며, 이를 통해 나타난 스테디불서의 특징은 무엇일까.

독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책은 〈서있는 사람들〉 〈텅빈 충만〉 〈산방한담〉(이상 법정 지음, 샘터) 〈무소유〉(법정, 범우사) 〈만다라〉(김성동, 푸른숲) 〈우담바라〉(남지심,고려원, 전4권)의 순으로 밝혀졌다.

〈서있는 사람들〉은 78년 초판이 선뵌 이후 지난해 1월 67쇄에 이르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으며, 판매부수에서도 1백만부를 넘어서는 밀리언셀러로 등극했다. 〈만다라〉 또한 79년 출판된 이후 50만부가 팔려나가는 스테디셀러로 기록된다.

가장 오래 전에 출판돼 최근까지 나오고 있는 책은 〈불교사전〉(운허, 동국역경원, 61년 초판)으로, 28쇄 5만6천권이 판매되며 30년 이상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

스테디불서로 집계된 23종 가운데 경전과 수상집이 각각 5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선·명상 소설 불교입문·교리 불교사상 사전 건강의 순이었다. 80년 이전에는 〈불자지송〉 등 독송을 위한 경전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각 부문별로 다양화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정스님의 저술이 4종을 차지해 단연 돋보이는 필자로 꼽혔다. 또 스테디불서를 생산한 출판사들은 20여년 이상의 비교적 오랜 역사와 이에 따른 길자교섭력 영업력 등이 뛰어난 곳으로 밝혀졌으며, 수상집과 소설을 제외한 경전 및 교리·입문 등의 불서는 쇄를 거듭하며 꾸준히 독자들이 찾고 있으나 발행부수가 현저히 떨어져 불서시장의 협소함을 확인케 해주었다. 〈선으로 가는 길〉의 경우 76년 초판 이후 23쇄까지 인쇄됐으나 판매부수는 2만5천부에 머물렀다.

스테디셀러는 단지 많이 팔린다는 베스트셀러와는 달리 일정한 품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출판사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범우사 편집실장 부길만씨는 "베스트셀러가 짧은 일정기간 동안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스테디셀러는 한 시기의 정신적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들 불서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평가하고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안을 주고 깊은한 문장과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자세로 삼의 지표를 전해주기 때문"이라고 스테디셀러가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성운 기자〉

화제의 책

서울의 사찰 52곳 자세히 소개

전통사찰—서울
최원식 외 지음

서울지역에 소재하며, 2백년 이상의 역사와 함께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은 모두 52곳에 이른다. 이들 전통사찰과 3곳의 절터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강원도 경기도편에 이어 전통사찰총서 시리즈 네번째권인 〈서울〉에서는 속설로 전해지는 창건주와 창건연대, 단편적으로 밝혀진 사찰의 연혁을 재정리하는 등 사지(寺誌)로서의 체계성도 갖췄다. 사찰의 문화재적 가치 뿐만아니라 수행·신앙의 터전으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킨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사찰문화연구원, 1만원〉



인생문제 본질에 대한 해답서

금강경 강의
무비 지음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금강경은 불교라는 거대한 산맥을 향해오르는 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길로 인식되고 있다. 무비스님은 〈금강경 강의〉를 통해 특유의 선적 견지와 해박한 불교지식을 결들여 금강경의 진수에 젖어들게 하면서 반야삼매로 이끌고 있다. 아울러 '우리가 여기 있음'이라는 인생의 본질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금강경 32분을 한문경전과 우리말 풀이, 강의문으로 구성했다. 〈불광출판부, 5천5백원〉



위기극복 위한 불교 가르침

불교를 알면…
박광서 외 지음

오늘의 현대문명이 처해있는 위기와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적 세계관으로 불교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불교를 알면 21세기가 보인다〉는 한국불교사회연구소가 '21세기 불교아카데미' 강좌내용을 묶은 불교 및 현대문명 비평서로, 불교에 잠재된 사상적 현실적 에너지가 인류공동체의 과제를 해결하는 필연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불교의 보편성과 미래의 비전(이남곡)' '과학과 불교의 새로운 만남(박광서)' '새로운 문명관, 인간상을 찾아(법륜)' '지역사찰의 위상과 역할(현능)' 등 8편의 강좌를 실었다. 〈정토출판사, 4천8백원〉



중국선승 32명 생애·사상 조명

인물중국선종사
성본 외 지음

중국선종은 1천7백 공안을 남기는 등 우리나라 선종과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인물중국선종사〉는 '전등법맥과 사자전승' '우두종' '정중종' '북종선' '남종선' '초기 선종사상사' 등 6개의 장으로 구성, 보리달마로부터 남악회양 대주혜해현사사비까지 모두 32명의 중국선승의 생애와 선지를 정리하고 있다.

또 이 책에서는 중국선종사에서거론조차 않았던 정중종 계보의 복원과 함께 정중무상선사 문하에서 신라 구산선문이 형성되었음을 밝혀 선종사 구성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불교영상, 1만5천원〉



출판단신

월간 '굴렁쇠 어린이' 동쪽나라로 제호바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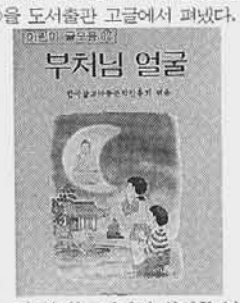
불교계의 유일한 어린이잡지 월간〈굴렁쇠어린이〉가 3월호부터 제호를 〈동쪽나라〉(263-1387)로 바꿔 새롭게 선보인다.

발행인 김형균씨는 "〈동쪽나라〉는 '해뜨는 나라'라는 뜻과 함께, 서방정토에 비추어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땅임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3월호부터 24면을 증면해 정채봉씨의 생각하는 연재동화, 이동렬씨의 신나는 글짓기교실, 윤승운씨의 만화삼국유사를 새로이 연재, 보다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꾸밀 것이라고 밝혔다.

90년 1월 창간된 〈굴렁쇠어린이〉는 그동안 통권 59호를 발행하며 겨레의 얼과 조상의 슬기를 담은 잡지, 전통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잡지, 부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달하는 잡지로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한편 극단〈굴렁쇠어린이〉도 극단〈동쪽나라〉로 명칭이 바뀐다.

어린이 글모음 펴내 불교아동문학진흥회

한국불교아동문학진흥회(이사장 박용설)는 최근 열두번째 어린이 글모음집 〈부처님 얼굴〉을 도서출판 고글에서 펴냈다.



이 책에는 지난해 실시한 불교어린이 글짓기잔치에 참가한 사찰 및 종립학교 어린이들의 불교소재 작품 중에서 가려뽑은 동요와 동시 생활문 86편이 실려 있다.

1억원 고료 만화공모 하늘미디어, 3월까지

도서출판 하늘미디어(대표 우정애)는 만화사상 최고 규모인 1억원의 고료를 내걸고 창작만화를 공개모집한다. 시인 기성 제한없이 응모가능하며, 1권 192~240면 기준으로 5권분량 이상(응모시는 2권분량의 작품과 원고지 20장 내외의 줄거리 제출)의 작품을 3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당선작 1편에는 5천만원, 우수작과 가작 각 1편에는 3천만원과 2천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문의 02)273-9282.

※기사넘쳐 「명사추천 불서100선」 이번주 쉽니다.

새로 나온 책

▲선과 동방문화(오형근 외 지음)=한중불교학술교류회의 첫번째 논문집. 한국에 달마선이 도입되기 이전의 선학을 밝힌 '신라전기의 선사상(오형근)'을 비롯 '한국과 중국 선화의 비교연구(문명대)' '선과 서법예술(장대강)' 등 두 나라의 정신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불교의 선사상을 주제로 한 논문 18편을 실었다. 〈한중불교학술교류회, 비매품〉

▲법공양문(일타 역음)=부처님과 중국 미 우리나라 고승들의 법문 가운데 감명깊은 글들을 가려뽑았다. 원효대사의 법공양문, 지공화상의 권세문, 경허선사의 입산가, 성철스님의 납자십계(納子十偈), 달마대사의 사행관, 신심명, 증도가 등 45편의 글을 발심장 수행장 구경장(究竟章)으로 나누어 원문(한자)과 번역문을 함께 실었다. 〈효림, 5천원〉

▲반야의 신바람 물소리(랑승만 지음)=16여년 동안 반신불구의 몸으로 시만을 삶의 등불로 삼아 살아온 랑승만시인의 열한번째 시집. 치열한 구도정신과 원로시인의 순수서정이 어우러져 있다. 〈뿌리, 4천5백원〉

▲이슬을 털며(혜관 외 지음)=큰수레글나눔회의 다섯번째 시동인집. 청화스님과 정공채 시인의 초대시 '나의 옷'과 '산중암 앉에서'를 비롯해 정운 수완 로담스님 이석인 안상우 강영희씨 등 회원들의 작품 80편과 3.5회 삼오문학상 당선작을 실었다. 〈큰수레글나눔, 3천2백원〉

▲열반의 별빛(석용산 지음)=용산스님의 일곱번째 시집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정진하는 수행자의 구도의지를 단순하고 투명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시인 이동진씨에 의해 영문으로 번역돼 영어권에서 동시에 출판됐다. 〈문학수첩, 3천5백원〉

▲그냥 바라만 볼뿐이다(고엔카 지음)=문답과 예화를 중심으로 위빠사나 명상법을 훈련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해를 밝힌 수행서. 위빠사나 수행자인 고엔카의 가르침을 편역자 서광스님이 현대심리학적인 면에서 해설을 덧붙였다. 〈불광출판부, 4천5백원〉

▲초발심 수행문(석승임 역음)=수행의 기초로 널리 읽히는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원효스님의 자경문(自警文)을 원문과 번역을 실어 해설하고 불교의 기초지식을 문답식으로 풀이했다. 〈솟뱀, 7천원〉

▲부처님 땅 3.4(이정범 글·이희탁 그림)=부처님의 지혜를 전해주는 6~7세 어린이용 불서. 3권은 연꽃 코끼리 사자, 4권에서는 스님 합장 죽비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각 면마다 동화와 그림을 곁들였다. 〈불지사, 각권 4천원〉

▲오뚝이 열전1(윤승운 지음)=올바른 신앙생활과 굳건한 신념으로 후세에 귀감이 되는 종교인들의 삶을 그린 종교만화. 원효 혜초 일연 용파 나옹 조신 대남스님 등 불교인 7명을 비롯 22명의 종교인을 소개하고 있다. 문화체육부 지원으로 제작됐다. 〈송우출판사, 4천5백원〉

▲만화 토정비결(이영흠 글·그림)=토정비결을 만화로 쉽게 풀이했다. 토정 이지함의 주역 64괘를 863번법을 사용하여 1년의 신수를 월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꾸몄다. 〈우리출판사, 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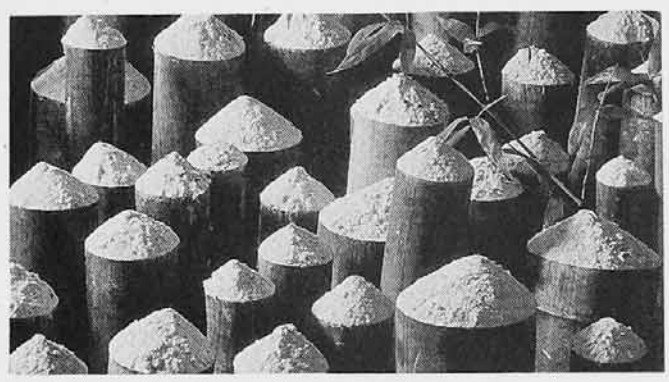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자네, 도가 뭔지 아나	효림	대원정사
2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경각
3	가려뽑은 아함경	교육위원회	선우도량
4	서울	최원식 외	사찰문화연구원
5	천수경	무비	불일
6	불교의 체계적 이해	고익진	새터
7	참된 사람들의 이야기	윤승운	불지사
8	사찰, 그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교보문고
9	알기 쉬운 불교	편성부	불교방송
10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	암도	우리

구입문의:(02)737-0695

소금을 바꿔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佛子가 먹는 소금,

인산죽염은 생명원소들이 살아있는 굵은 소금을 왕대나무통 속에 넣고 입구를 지리산 황토로 봉한 다음 1천도 이상의 센불에 구워 낸 약소금입니다.
죽염의 창제자 仁山 김일훈(1909~1992) 선생의 가르침 그대로 만든 세계 최고의 소금—인산죽염.
소금을 인산죽염으로 바꾸십시오.



150년을 잇는 「신토불이 건강」의 맥
仁山家
고객상담 736-3171 • 죽염요법 상담/질병치료 정신수양을 위한 쑥뜸 상담

절찾아 가는 길

점점 녹슬어가는 "우리절 이정표" 이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큰 맘 먹고 장만한 「우리절 이정표」 막상 비 오고 시간이 흐르면 녹슬고 칠이 벗겨져 보기 흉해집니다. 간판을 자주 할 수도 없고, 칠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보면, 처음부터 잘 만드는 곳에 맡기셔야만 합니다.

저희 「가람기획 이정표」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반영구적인 스텐레스 재질로 디자인까지 산뜻합니다.

또한 저희 「가람」에서는 불교의 전문화·고급화·대중화를 위하여 불교미술문화를 소재로한 디자인의 현수막과 전국사찰지도·사찰연혁판·게시판·리본·상패·포스터·팜플렛·세계불교기·법륜기·만불기 등과 각종행사 기획을 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람기획」은 오직 「불자」됨을 자부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0
☎ 720-5121, 2874 FAX 732-3769

가람企劃 대표 이 주 영 合掌

불심시심 〈11〉

옹색하지 않다.

吾住此庵吾莫識 (오주차암오막식) 내 이 암자에 살면서 나도 알지 못해
深深密密無雍塞 (심심밀밀무옹색) 깊고깊고 좁고좁아도 옹색하지 않다.
函盖乾坤沒何背 (함개건곤몰하배) 하늘 땅 덮어 가두었으니 앞 뒤가 없고
不住東西興南北 (부주동서흥남북)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도 집착이 없다.

태고화상의 태고암가(太古庵歌)의 맨앞 부분이다. 제목이 말하듯이 이는 태고화상의 자신의 암자에 대한 노래이다. 80구나 되는 장편의 노래이다. 화상이 삼각산 중흥사(重興寺)의 동편에 암자를 짓고 이름을 태고암이라 하고 지은 노래이다. 그의 제자가 쓴 행장에 보면 '태고라는 편액을 붙이고 긴 노래를 지었는데 아담한 곡조가 더욱 높아 아는이가 별로 없고 때때로 소나무 소리만 화답한다' 하였듯이 이 노래는 암자와 서로 어울릴 정도로 운치가 높았다.

태고화상이 중국에 가서 석옥(石屋)화상을 만나 이 노래를 알리니 노래의 내용이 더 비할 데 없이 훌륭하다 하면서 기뻐해 마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래도록 내가 글 쓰는 일을 사절해 왔는데 지금은 붓이 춤을 추니 나도 모르게 이 노래 끝에 몇 자 쓰게 된다"하면서 시 한 수를 써 주었다 한다.

이것이 바로 시나 글이 사람 감동시키는 실상이다. 제 고장도 아닌 이국땅에서 말이 잘 통할 리도 없는 상황에서 당시로서 세계적 고승이라 할 수 있는 석옥화상에게서 이러한 칭찬을 받았다함은 그 당시 우리 스님들의 법력을 짐작하게 한다.

태고의 암자는 시간적으로 고금을 잇는 암자이다. 이 암자에 내가 살고 있다. 살고 있으면서 그 자체를 모른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진리이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바로 과거와 미래를 포용하고 있는 시간의 전부이다. 현재 자체에 갇혀 있는 과거나 미래이니 얼마나 깊으며 좁은 공간인가. 그러나 옹색하다고 느끼는 적이 없다.

육면체의 이 암자는 바로 위 아래로 대칭되는 하늘 땅이요 그 자체가 바로 우주공간의 축소모형인 것이다. 여기 내 앞이다 뒤다 하는 자리매김이 의미없는 일이요 육면체이거나 원형의 둥굼으로 한정될 공간에서 동서남북의 방향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종찬(동국대교수)

지방불자 예술인

"공동체 형성 시급하다"

지방화 시대의 문화포교 중추역 맡아야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각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문화예술인들도 조직체를 결성,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소리가 일고 있다.

현재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자 예술인들은 상당히 많은데 비해 공동체적 활동조직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지역 불교예술활동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불교문인협회, 문화예술인법회, 불교미술인협회, 동국미술인회 한국불교음악연구회등 다양한 모임이 형성된 것과는 달리 지방의 경우는 부산불교문인협회가 유일한 불자예술인의 단체로 꼽히고 있다.

이는 그간 불교계의 문화예술 활동이 중앙집중화 현상을 보여 온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각 지방 대도시의 불자 문화예술인들을 지역에서의 활동무대를 넓혀야 할 것이란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 문화예술인들이 장르별로 조직체를 결성하고 연합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산불교인협회(회장 김문숙)의 경우 매년 계간지를 통해 작품 발표의 기회를 가지며 자체 행사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에서의 미술 음악활동은 개인적인 무대와 전시회에 그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활약중인 음악인으로는 김성국(부산여전)교수, 무용가로는 이영희(경성대)교수가 꼽힌다. 또 이명미씨도 법고, 승무등의 무대를 통해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미술계에서는 전통 불상조각이나 단청·불화부문의 장인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 미술·음악·무용계에서 활동중인 예술인들은 '기회가 닿으면 모임을 만들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 역시 강통원(수필)씨등 문학분야와 고봉식, 이춘기씨등 음악인과 서예계의 현중화씨등이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을 결속시킬 단체는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도 판화의 김영만씨 문학의 김종 시인 수채화의 강연균씨 전통불화의 고영율씨등이 활약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국악 분야에 많은 불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광주지역에서는 조상현씨등을 중심으로 불자국악인모임의 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직 움직임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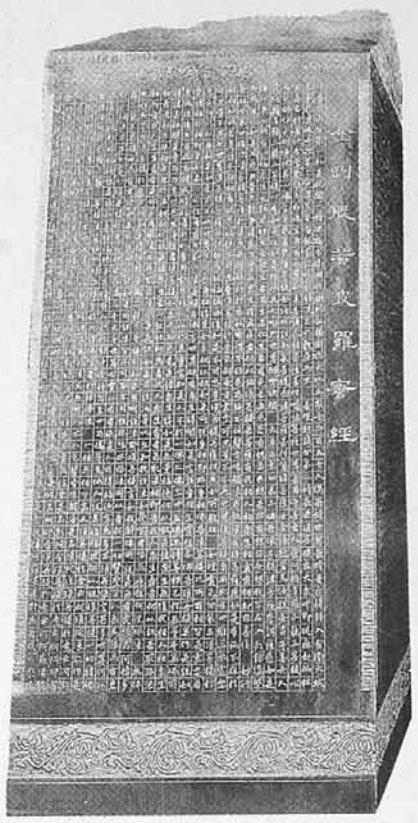
원주에서 활동중인 최홍원씨(미술)의 경우 "지역 미술인들과 불교라는 공동과제를 통해 작품활동을 해 나가고 싶어도 뚜렷이 의사를 밝히는 작가가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원주지역이 가톨릭,개신교의 세력이 워낙 강한 탓인 것 같다며 지방도시의 불자 예술인들이 결속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지역의 경우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교수들이 문화 예술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개 서울에서 활동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도 김부겸, 이중희씨등의 화가들과 진동규씨등 문인들이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뿐 연합체는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대전, 대구, 춘천등지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방에서 불자 문화예술인들의 활약이 보다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 불자들의 관심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불자 문화예술인들의 공동 작업과 작품발표의 기회 확대등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임연태기자〉



◇정병례씨가 4각의 돌에 새긴 금강경.

정병례씨 전각 「금강경」전

3~12일 조계사 80점 출품·지방순회도

고암 정병례씨의 전각 「금강경」전이 3일부터 12일까지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법회인유' '화무소회'등 금강경 반야심경을 돌에 전각한 8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정씨가 이번에 전시할 작품들은 단색이라는 전각의 한계를 회화적인 구성으로 극복, 오히려 다양함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또, 우주의 조화로움과 음양의 조화를 창살등의 소재를 이용해 적절히 잘 표현해 주고 있어 독특하다.

작가 정병례씨는 "두번째로 갖는 이번 전시회에 공(空)으로써 집착의 굴레를 벗어나 아공을 얻으려는 불교진리 지향적 작품세계를 극명하게 나타냈다"며 "부처님의 숭결을 직접 느끼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암전각예술원은 이번 조계사 전시에 이어 부산, 대구, 호남을 차례로 순회전시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앙박물관내 문화재 환수 서명 전개

원주문화원 … 국보 법화사지탑비등 7점

원주문화원(원장 박형진)은 오는 96년 원주박물관 준공에 맞춰 지역 문화재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7점을 환수하기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원주문화원은 오는 3월 (가칭)문화재환수추진위원회를 설치, 국보및 보물급 문화재 환수를 위한 시민운동을 펼치는 한편 연말까지 서명을 받기로 했다. 원주지역 문화재가 환수될 경우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하되, 복원이 어려울 경우 내년에 완공될 박물관에 보존한다는 것이 원주문화원의 계획이다.

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원주지역문화재는 △국보101호 법화사지 지광국사현묘탑비 △국보104호 흥법사지 염거화상탑 △보물190호 원공국사승묘탑 △보물365호 흥법사지 진공대사탑 부석관과 보물급인 진공대사탑비 비신 △보물358호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 2점 등이다.

영암 용암사지 정비

쌍계사 시왕전도 보수키로

국보 제 144호 월출산 마애여래좌상이 있는 전남영암 용암사지가 올해 정비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암사지를 정비키로 하는 한편 진도 쌍계사 시왕전도 보수키로 했다.

자비의 음성공양

불교소년소녀합창단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제 2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19일 한국일보빌딩 13층 연주홀에서 열렸다.

총 47명의 합창단원이 박이제씨의 지휘와 민선희씨의 반주에 맞춰 연주한 이날 공연은 1, 2부로 구성, 소년소녀가장돕기의 취지아래 성황리에 펼쳐졌다.

백제난민의 용화세계 꿈 그려

진동규씨 천불천탑 시극 「일어서는 돌」



◇진동규씨

전남 화순의 운주사 천불천탑. 그 비밀스런 신앙의 흔적이 시극(詩劇)으로 구성됐다.

전주 신흥중학교 교사이며 시인으로 활동중인 진동규씨가 최근 내놓은 시극 〈일어서는 돌〉은 백제의 난민들이 화순 영구산에서 천불천탑을 조성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역사적으로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운주사의 천불천탑 조성을 백제 난민들의 용화세계에 대한 갈망의 작업으로 묘사한 것이 이 시극이 갖는 특징이다. 시인은 극의 형식을 빌어 난민들의 애환과 희망을 극적으로 이끌고 있어 작품전체에 종교적 주의와 역사적 분노가 적절히 용해되고 있다.

〈일어서는 돌〉의 무대는 화순 영구산이며 시기는 백제의 마지막 항쟁시기로 설정됐다. 또 등장 인물들은 의자왕의 사랑을 받았던 왕녀와 백제 미륵신앙의 수호자 연좌굉, 무녀·경비대장, 난민, 병사등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꾸며내는 이야기는 한결같이 현실의 아픔을 미륵세상의 열락으로 승화시키려는 데로 모아져 있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어서는 돌〉은 신아출판사가 묶었다.

PC통신 불교잡지

월간 「반야」 창간

컴퓨터 통신 불교잡지 「월간 반야」가 창간된다.

지난달 20일 창간준비호가 발간된 「월간반야」는 천리안 불교동호회 회원들간의 통신내용을 엮어 매월 출간될 예정이다.

「월간반야」는 천리안통신을 통해 교류된 불교교리, 경전강좌, 산사의 풍경소리, 선사열전, 각 지역의 신행소식과 불교계 소식등 불교적 내용과 문예물을 실어 회원들의 회합이 부족했던 천리안 불교동호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낼 전망이다.

경천·원각사탑 문화재연구소 관리

예산 책정 안돼 … 전국 34개 석불 개보수

문화재관리국은 훼손이 심각한 경천사·원각사탑에 대한 관리를 문화재연구소에 위임했다.

문화재연구소는 현재 보호막 설치만 되어 있는 이들 탑에 대한 실태파악 및 보존대책 마련을 해빙기 이후로 계획하고 석탑 박리박락현상(부풀어 떨어져나가는 현상)의 연구대상으로 지정,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개보수를 위한 예산 책정은 아직도 전무한 상태여서 행정적 뒷받침이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의 전체예산 중 각 부문에서 일부를 떼내 개보수 비용으로 마련, 보수작업에 충당하겠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보존대책마련에 있어서는 경천사탑은 2천년 중앙박물관 이전후 박물관내에 전시한다는 잠정적인 방안만을 세우고 있을뿐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한 교계의 대책도 전무한 상태여서 불자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은 전국 34개 석불에 대해 97년까지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개보수작업을 실시한다.

보수를 요하는 1백18건 중심의 책정된 34건의 석불은 완전해체 8건, 부분보수 24건, 겹토대상 2건으로 95년도에는 8건의 석탑만이 문화재보수 기술업체에 위탁, 보수케 된다.

과거 도괴로 파손된 경기 여주군 신륵사 다층석탑(보물 226호)은 정면에서 볼때 우측으로 약 5° 측면으로 볼때 배면으로 약 5° 정도 기울어져 있고, 대리석질의 표면에 이끼가 심해 완전해체보수키로 했다.

또 북측면 1층 탑신이 36cm 정도 이탈했고, 하층 기단갑석이 균열 파손으로 없어진 것이 많아 해체보수가 시급한 경북 경주 월성 나원리 오층석탑(국보 39호)과 탑 기단부가 주저앉고 지대석의 균열이 심해 탑 전체가 기울고 있는 강원 정선군 정암사 수마노탑(보물 40호) 또한 완전해체보수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남 영광의 신천리 삼층석탑, 전남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 경북 경주 감은사지 삼층석탑 등 5건이 더 완전해체보수의 시급함을 요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은 "충북 괴산 미륵지 석불입상(보물 96호)과 전북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11호)을 검토대상으로 선정,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관리국은 금년에 청련사 회전문등 훼손상태가 심각한 문화재들을 조사해 개·보수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필선기자〉

아직도! 인도 성지 순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감동은 한평생 동안 성원하여 주신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더욱 성실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수미산 가족 일동—

여행번호	방문지	여 행 일 정	요 금	출 발 일 '95.1	2월	3월	4월
INA-01	인도 10일	불교 4대 성지	150만원				
INA-02	인도 30일	인도 전역 자유여행자를 위한 왕복 항공권					
INA-03	인도 12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바람푸르)-럭나우-델리-방콕	180만원 (155만)		95년 2월 16일 3월 7일		
INA-04	인도 15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나지기르-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산치-아잔타-엘로라-봄베이	210만원 (180만)		95년 2월 10일 3월 3일		
INA-05	인도 17일	방콕-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나란다-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럭나우-아그라-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맘마드-봄베이-방콕	230만원 (200만)		95년 2월 7일 2월 28일		
INA-06	인도 22일	방콕-카투만두-룸비니-사나울리-기원정사-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상카시아-아그라-델리-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맘마드-봄베이-콜롬보-아루라다루라-홀로나누와-시기리아-캔디-방콕-아유타야-홍콩-마카오	280만원 (240만)		95년 2월 5일 2월 19일 3월 5일		

INDIA 인도관광성 | Travelite (India) 인도전문여행사

그럼, 지금 수미산 여행사로 문의하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친절한 안내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모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도라하더라도
저희 수미산과 함께라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출발예정일

대 만	(4박 5일)	1월 22일	(불광사·일월담·화련·타이페이)	65만원
대 만	(4박 5일)	2월 24일	(불광사·일월담·화련·타이페이)	65만원
싱가폴·빌리	(5박 6일)	2월 18일	(싱가폴·보루부둘·발리)	90만원
방콕·홍콩	(5박 6일)	2월 4일	(방콕·홍콩·마카오)	75만원
스리랑카	(8박 9일)	2월 14일	(스리랑카 페라헤라축제)	140만원

(주) 수미산 여행사
SUMER TOUR CO., LTD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딩빌딩 2층
전화 02-720-3241~7 / 팩스 02-720-3248
국외여행업 등록 제358호

여행번호	방문지	여행일정	요금	'95.1	2월	3월	4월
SMR-01	미얀마, 태국 8일	양곤-만달레이-파간-패구-방콕-아유타야(파타야)	129 만원	10	10 21	11 22	5 18
SMR-02	일본 5일	오사까-나라-교또	95 만원	18	17	17	20
SMR-03	일본 6일	동경-나라-교또-오사카	135 만원		15	8	22
SMR-04	대만 5일	타이페이-일월담-고웅-불광사	55 만원	22	24	12	20
SMR-05	대만 6일	타이페이-일월담-고웅(불광사)-화련	65 만원		24	23	8
SMR-06	태국 6일	방콕-파타야-아유타야	60 만원	8	8	15	21
SMR-07	동남아 3개국 8일	홍콩-방콕(아유타야)-싱가폴(바탐)	90 만원	18	21	17	10
SMR-08	동남아 4개국 10일	방콕-아유타야-보루부둘-홍콩-타이페이(불광사)	155 만원		27	19	14
SMR-09	(8박 9일) 스리랑카	홍콩-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누와-캔디-누와라엘리야(불족산) (페라헤라 축제)	140 만원	10	⑬	9	15
SMR-10	(7박 8일) 태국 스리랑카	방콕-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캔디	108 만원	11	10.21	20	21

*상기 일정중 단체 출발시에는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기 코스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일 부산 BBS 개국

13개 시·군 가청권…광주 3월1일로 연기

부산불교방송이 2월1일 개국, 본방송에 돌입했다.

부산불교방송은 부산·김해시등 5개시와 양산군등 8개 시군 일원을 가청권으로 1일 새벽 5시30분 지역불자들에게 T.K.B 라는 일괄시스템으로 정규프로그램을 송출했다.

가청주파수 FM89.9MHz, 3Kw 의 송신출력으로 지방네트워크시대를 연 부산불교방송은 보도 일일 10분·주간 60분, 포교 일일 30분·주간 180분, 교양 일일 25분·주간 150분의 방송비율로 이 지역 청취자들에게 신행·정보 전달에 기여하게 된다.

우선 서울불교방송과 2원체제로 방송운영될 부산불교방송은 매일 2차례에 걸친 지역뉴스와 열린아침 열린정보, 반야의 샘을 65분간 기획방송 하고 10%내로 로컬프로그램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부산불교방송은 1일 개국특집으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오전 8시20분」 「불교방송, 용삥정진의 새시대를 맞는다-오전 10시5분」 「부산불교방송 개국축하 큰잔치-오후 12시10분」 「깨침의 나눔의 기쁨-오후 3시5분」 「부산불교, 그 큰 원력을 말한다-오후 7시10분」 등을 방송했다.

지난달 15일 부산 KBS홀에서 3천여명의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개국축하쇼에 이어 8일에는 개국 축하리셉션'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어 지방국 개국의 환희를 자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불교방송국은 행정·기술상의 과다한 업무량 폭주와 일본 NEC에 발주한 방송장비의 설치 지연관계로 개국을 3월1일로 연기했다.

부산 자체제작프로

◇지방뉴스(낮12시15분,오후 7시15분): 1부 수도권 뉴스와 2부 지방뉴스의 2원방송으로 진행된다.

◇열린아침 열린정보(월~토 오전 8시30분): 각종 불교행사 안내, 교통·취업·출판정보등을 출근길 시민들에게 전하는 종합구성프로.

◇반야의 샘(월~토 오후 4시10분): 동아대 곽만연교수의 진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부산·경남에서 활동중인 사부대중에게서 신행·포교원력을 듣는 시간이다. 이를 계기로 부산경남불교의 활성화를 꾀하게 된다.

노인돕기 자선 바자회 연예인 자원봉사단

연예인 자원봉사단(단장 엄용수)은 지난달 24일부터 6일간 잠실 향군회관에서 무의탁 노인돕기 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

대한노인중앙회의 후원을 받아 열린 자선바자회에서는 설맞이 제수용품 및 광도특산물 먹거리와 의류, 생활용품이 전시 판매됐다.

연예인 자원봉사단은 이번 행사로 얻어진 수익금을 전액 무의탁 노인들에게 전달한다.

'일그러진 영웅' 홍경인 동국대 영연과 합격화제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역으로 잘 알려진 홍경인이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또, 93년도 미스코리아 미허성수도 동국대에 합격했다.

이외에도 「김가 이가」 「한지붕 세가족」의 김수정, 「무동이네 집」의 김은정, 「백랑시대」의 양세윤은 복수지원 관계로 중앙대와 동국대에 동시에 합격해 아직은 동국대로의 입학이 불투명한 상태다.

불교방송 설연휴 특집프로 안내

불교방송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 지난달 28일부터 방송에 들어갔다.

◇50분 교통정보(28일 오전 3시50분, 매시10분간)=시·도경,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각각 연결, 민족대이동이 예상되는 귀성길 상황을 안내한다.

◇까치까치 설날은(30일 오전 8시20분)=연극·영화안내와 알뜰시장 정보를 비롯 설날 신풍속도를 소개한다.

◇우리명절, 우리놀이(31일 오전 8시20분)=윷놀이, 널뛰기등 가족·친지가 함께하는 민속놀이를 소개, 한마당 큰잔치를 벌인다.

◇변진섭 라이브콘서트(31일 오후 4시20분)=지난 25일부터 동숭동 라이브극장에서 열린 변진섭의 콘서트를 실황방송한다.

◇고향에 띄우는 노래(31일 오후 12시10분)=인기가수들이 총출연해 노래실력을 겨루고 설날에 얽힌 추억담을 듣는다.

◇배추머리노래방(31일 오후 8시5분)=실향민들의 고향 그리는 마음을 김병조씨의 위트와 재치로 달래고 그들의 마음을 노래에 실는다.

◇생방송! 민요노래방(31일 오후 4시5분)=김성녀, 김종엽씨의 사회로 청취자들의 애창민요를 노래방 형식으로 노래대결을 한다.

설날 아침에 찾아간 대부도 쌍계사



◇대부도 쌍계사에서 설을 맞은 열네명의 고아들. 형제애를 나누며 함께 공부를 하고있다.

14형제 "엄마생각 더 나요"

법현스님, 15년째 고아 아들·딸 돌봐

설날.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떡국 한 그릇을 앞에 놓고 합장을 하더니 금방 "냠냠쩝쩝" 한 그릇을 뚝딱해치우는 쌍계사(옹진군 대부도 (032)886-2110)의 14형제들.

여섯살짜리 향아의 새까만 눈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영목이의 곰짝이는 눈에서도 설날의 기쁨은 이내 자취를 감추고 만다. 떡국 한 그릇을 먹는 것 외에 다른 날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설날이 뭐 그리 대단하냐는 형아들의 얘기에 꼬맹이들은 새조롭이 뒷켠으로 달려가 버린다. 느닷없이 떠오르는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 때문일 것이다.

영목이와 동생 영훈이 그리고 또 네명의 꼬마들은 한때 오대산 월정사에 살다가 4년전부터 이곳으로 왔다. 중학교에 들어가는 경관이는 대부도에서 태어났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경관이만 남겨두고 엄마는 '도망'쳐 버렸다. 그래서 주지 법현스님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이곳으로 들어 왔다. 향아와 오빠 동현이(국민학교2학년)는 충남 홍성에서 홈아버지를 여의고 동생 한명은 고모집으로 보내고 둘만 이곳으로 왔다. 역시 법현스님의 차를 타고.

그런저런 인연의 끈들로 모인 14명의 형제들은 법현스님의 아들 딸이 되어 가난하지만 '웃음'만은 잃지 않고 살고 있다. 스님은 벌써 15년째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있다.

쌍계사 밥을 먹으면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제 살곳을 찾아 떠난 아이들도 많지만 언제나 지금 사는 아이들이 스님에게는 정붙이 일 수 밖에 없다. 10여명의 등록금을 한꺼번에 내기에는 너무나 어림없는 절살림. 그래서 스님은 전국을 다니며 학비마련 화주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

"대부도에는 1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절은 쌍계사 뿐이고요. 3백년 역사의 이 절은 정기법회를 열 만큼의 신도도 없고 기도하러 오는 신도도 거의 없습니다. 남들은 여기가 고아원인줄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고아원은 아니라고 강조하는 스님은 "그래도 부처님의 가피력이 큰 탓인지 굶지는 않지요. 다만 학비가 매번 쪼들리는데 학교에서는 대개 육성회비 정도만 면제해 줍니다"

쌍계사의 한달 생활비는 1백만원에 이른다. 절살림의 빠듯함도 허리가 아프지만 등록금을 내는 달이면 정말 부처님만 욜려다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올겨울 김장은 섬안의 교회 다니는 신도들이 와서 담궈 줬어요" 법현스님은 설날 아침이지만 아이들에게 줄은 선물이라도 한가지씩 못 사주는 처지가 못내 안타깝다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대부도=임연태기자〉



◇70년만의 참혹한 대지진을 겪은 일본 고베시 시민들이 부처님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국보 반가사유상 무사

고베지진으로 광륭사등 16사찰 피해

지난 17일 발생한 일본 관서지방 대지진으로 교토에 있는 16개 사찰을 비롯한 문화유적과 불교문화재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교토 광륭사에 안치되어 있는 성관음입상(중요문화재)이 1m 높이의 좌대에서 떨어졌으며, 성덕태자16세상과 같이 모셔진 시자상의 왼손이 파손되는 등 3점의 불교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일본 국보1호인 반가사유상은 다행히 피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사(東寺)에서는 사찰의 기와가 무너져 내렸으며, 서본원사의 경우 경내의 석등이 여러 개 넘어졌다. 천룡사는 요사채 벽에 균열이 생기기도 했다.

담징의 벽화가 봉안되어 있는 법륭사는 불상 1점과 석등 2기가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으나 국보급 문화재의 피해는 없었다.

한편 고베에 있는 청량사에서는 국보인 아미타여래상의 광배 일부가 떨어졌으며, 시호사의 5층석탑(국보)과 금당 외벽에 균열이 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일본문화청의 문화재 피해집계에 따르면(18일 현재) 국보 및 중요문화재가 33건, 불상등 미술공예품 11건, 정원 등 사적 명승지 천연기념물 8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청은 또 피해문화재의 보수에 대해 문화재 자체를 손상시킬지도 모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진피해 사찰 및 파손된 불교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여의사(고베):3층석탑, 문주당 *장원사(효고현):대웅전 장신구 일부 *광륭사:목조성관음입상, 목조아미타여래입상, 성덕태자 시자상 *청량사:아미타 협시보살상, 목조십대제자입상, *묘법원(교토):목조천수관음입상 *법계사(교토):아미타당 내 벽화 *법륭사:목조여의수관음좌상 보관 *시호사:5층석탑.

해외통신

불교운동가 국제연합 사회참여운동등 논의 태국서 연례회의

불교운동가국제연합 (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이하 INEB)의 제 7차 연례 회의가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태국 왕사닛 아쉬람에서 개최된다.

한국불자로서는 불교환경연구원 유정길국장이 참가하며 이보다 앞서 열릴 '진리의 공동체'의 연사로는 한국의 진월스님이 초대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6년간의 INEB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불자들의 사회운동 참여의 전망이 실천·이론면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향후 INEB가 지향할 방향에 대한 그룹별 토론, 성, 폭력·비폭력적 투쟁방법, 인권, 환경을 주제로 하는 워크샵,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하게 될 여흥의 시간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INEB는 사회문제에 관심있는 불자, 비불자들이 모여 1989년 조직된 이래 불교의 사회참여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현재 태국을 본부로, 미국, 인도, 영국 등 10개국 24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술병상표에 불상사용 '태' 정부 '불'에 항의

프랑스의 한 주류업체가 자사제품의 상표에 불상과 불교사원을 불경스럽게 사용한 것과 관련, 추안리크파이 태국총리가 프랑스 주재 태국 대사관에 이에 대한 항의를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방콕포스트가 22일 보도. 추안총리는 "신성한 종교적 상징이 불경스럽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콕=AP)

태고종 평창에 복지시설

6만평부지에 요양원등 건립키로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이사장 이규범스님)은 지난달 23일 열린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에서 강원도 평창의 임야 전답 약 6만여평의 부지를 출연, 요양원등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이규범 스님을 비롯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94년도 예산결산 및 사업보고, 95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 수립, 재산증자출연문제, 임원선출등의 안건등이 논의됐다.

평창의 부지에 건립하게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추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존의 이사회에 상무이사와 상임이사제를 신설, 법인의 원활한 활동을 기약키로 하는 등 총 21인의 이사를 새로 선출했다.

분규사찰 주지회의 1월26일 태고종

새해들어 태고종과 조계종간의 사찰분규문제해결의 향방에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봉원사, 안정사, 백련사, 성주암, 선암사, 불국사 등 태고종 분규 사찰의 주지회의가 지난달 26일 태고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미 지난달 17일 조계종과 1차 협상을 가진바 있는 태고종은 이날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분규해결을 위한 분규당사사찰의 입장을 정리하고, 태고 조계 사찰분규종식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자체적 공감대 형성, 태고종과 분규사찰간의 내부적 조율등을 논의했다.

조계종 임시 중앙종회 16~17일 위원회 구성 다뤄

조계종 제115회 임시중앙종회가 오는 16~17일 양일간 조계종 총무원 청사 1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종회의 안건은 지난 114회 종회때 결성하지 못한 법규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 각위원회 구성의 건등이다.

관음종 중앙종회 올해 50여 사업 계획

관음종(총무원장 이홍파)은 지난달 20일 총무원 묘각사에서 종회의장 정법륜스님등 종회의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정기 중앙종회를 열고 8월로 예정된 제6차 국제불교학술대회와 제3회 국제 보살수계식등 교육 교화 복지 건설분야에 걸쳐 모두 50여개의 사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13억 5천만원으로 확정했다.

해외 고승초청등 사업계획 발표

법화종 창종50돌 기념

지난해 창종 50주년을 넘긴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김대호)이 교구별 수련교육, 교구임원 및 합동수련교육등 종단 내실 다지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화종은 지난달 23일 올해는 종정 하례법회를 시작으로 95년도 종단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법화종은 미얀마 고승초청 국제 보살계 대법회, 4월 초파일 봉축전야 대법회, 한강 연등제등의 다양한 행사와 사회사업의 종단적 추진등으로 종단홍보와 종도화합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불교성지순례

귀의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여러 불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을해년 한해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 혜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합장



인도·스리랑카 15일
·출발:2월 12일 ·동참금:215만원
·일정:서울-델리-럭나우-발람푸르-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부다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오랑가바드(엘로라·아잔타)-봄베이-쿨롬보-아누라다푸라-풀론나루와-담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싱가폴-서울

인도·네팔·태국 11일
·출발:3월 2일 ·동참금:165만원
·일정: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카필라바스투-기원정사-사윗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앰부넛)-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

스리랑카 6일
·출발:2월 10, 24일 ·동참금:108만원
·일정: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풀론나루와-시기리야-하바라나-담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인도네시아 5일
·출발:2월 19일 ·동참금:85만원
·일정: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자카르타-서울

대만 5일
·출발:2월 20일 ·동참금:65만원
·일정:서울-타이페이-고웅-화련-타이페이-서울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수준) 2인 1실 수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 544-1533 (代)

孝본찰에 孝교육원 선다

용주사, 「화산 효행교육원」 법인설립 · 6월착공
내년 6월부터 학생 · 일반인 대상 합숙 교육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주지 정현스님)에 대규모 효행 교육원이 설립된다.

용주사는 (가칭)재단법인 「화산 효행교육원」을 구성, 효행교육원을 설립키로 하고 이사회구성및 교육원 신축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내로 구성될 이사회는 용주사 주지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부주지를 부이사장으로 하며 효행관련 덕망있는 인사를 이사로 영입할 방침이다.

오는 6월초에 착공 내년 5월말에 완공될 화산 효행교육원은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숙 교육하는 효전문 교육기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화산 교육원은 불교 유교 기독교등 종교적 편향을 지양, 각 종교가 강조하는 효의 윤리를 중심으로 교육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따르면 국민학생은 부처님전생담과 삼강행실도, 예수의 생애에 나타난 효의 정신을, 중고등학생은 부모은중경 목련경 선생자경 42장경 소학 성경등의 효사상을, 대학생은 지장경 대승불교 이론 보살도사상 대학·중용의 효사상, 일반인은 우파새경 보현행원품 논어 맹자 순자등의 효행 덕목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국민학생과 중고등학생은 2박3일, 대학생은 1주일과정, 일반인 직장인은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정해 교육과정을 정할 계획이다.

화산 효행교육원은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산 4-92번지 용주사 뒷편 임야에 설립된다. 약 1만평의 대지에 연건평 1천 2백평 규모의 교육관과 숙소등 2개동으로 지어질 화산 효행교육은 4개의 강의실과 2개의 소강당 1개의 대강당및 숙소 편의실등으로 구성된다.

용주사는 이미 법인정관 작성및 이사진 구성의 밑그림과 교육원 신축관련 기본 설계등 모든 계획이 세워진 상태이며 화성군과 경기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용주사측은 운영조직의 가장 핵심인 교육담당 교수및 강사도 폭넓게 섭외중이며 교육생들에게 충효사상을 보다 깊이있게 심어주기 위한 기본 교육프로그램도 짜여졌다고 밝혀 내년 5월 교육원 건물이 완공되는 즉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효의 본찰인 용주사에 효행교육원이 설립되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라는 주지 정현스님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효행수련을 통해 올바른 윤리의식과 국가관을 확립 건전한 사회인을 양성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고 효행교육원 설립 취지를 밝혔다.

용주사는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대왕이 부친 사도세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1790년에 중창한 사찰로 부모은중경탑등을 간직 효의 본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방 보훈병원에 법당 마련
간병인협 사업계획 확정

불교간병인협회(회장 석정진)는 지난 25일 강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95년 사업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유료·무료 간병봉사자 재교육을 겸한 수계식 개최(2월중) △7, 8, 9기 간병인 전문교육실시 △보훈병원 직원·환자불자 수계식 개최(6월) △수련회 개최(9월중) △방학을 이용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현장봉사실시 △부산, 대구, 관주 보훈병원에 법당 마련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펼칠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걸린 포교원 현판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이 18년만에 독립별원으로 다시 현판을 달았다. 지난 달 20일 봉행된 포교원 개원및 현판식에는 초대 포교원장 석주스님 2·4대 무진장스님 3대 성암도스님 등이 나란히 참석해 별원으로 승격 독립한 포교원의 장도를 축하했다.



◇지난달 25일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삼중·성보스님과 신도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재일동포를 돕기위해 성금을 모금했다.

지진피해 동포에 성금 줄이어

조계종 천만원 전달, 삼중스님등 모금나서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은 지난달 25일 일본 대지진 참사 위로금 1천만원을 한국일보 "간사이(關西)지진피해 재일동포 이재민 돕기 운동" 창구에 문화사회부장 시현스님을 통해 전달했다.

월주총무원장은 5천여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 대지진 참사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참사에 우리 불자들은 민족의 이해를 떠나 인류애로써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50여명에 달하는 교포들의 피해와 성보를 복구를 돕는데 전국의 사찰과 불자들은 앞장서 지원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에앞서 20일 월주스님은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지진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삼중스님(자비사 주지)도 지난달 25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앞에서 성금모금행사를 벌였다.

성보스님(부산 능인정사 주지)과 신도들이 '지진으로 통곡하는 재일동포를 도웁시다'란 어깨띠를 두르고 동참한 가운데 계속된 이번 성금모금행사는 5살의 어린 아이에서부터 70세 할머니까지 많은 시민들이 모금에 동참했다.

삼중스님은 이번 모금행사에 이어 부산에서의 모금행사와 일본에서의 전람회 개최로 지진피해 재일동포들을 도울 계획으로 있어 많은 교계단체의 동참이 잇따를 전망이다.

동국대수석 임성택군
승가대 수석 현찬스님

동국대(총장 민병천)는 지난 20일 95년 신입생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자 발표에 따르면 전체수석은 의예과를 지원한 임성택군(총점 968.8, 대구 경원고) 불교대학 수석은 인도철학과를 지원한 이준호군(867.5, 유신고)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 전체수석은 불교학과 노현찬스님(89년 동화사 득도) 차석에는 사회복지학과 송현공스님(93년 수덕사 득도)이 차지했다.

종단간부 본사주지 재교육

조계종 20~22일 직지사, 지자제 · 통일주제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이 주관하는 본사주지연수회가 오는 20~22일 직지사에서 실시된다.

올해 교육원 주요 추진사업중 하나인 승려재교육에 입각해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함을 취지로 개최되는 「본사주지연수회」는 △조계종 현황 △한국사회속에서의 종교현황 △지도자로서의 자기변화 △불교와 환경문제 △지방자치제와 불교의 대처방안 △통일전망과 불교계의 대응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한 불교계의 대비와 활용 등의 내용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에는 월주 총무원장 원산 교육원장 정락 포교원장 등 3원장과 각 부장등 종단 간부진들이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

신년 불교예술 대축제
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

제주 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단장 정우스님)은 지난달 21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95 신년불교예술 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예술대축제에는 제주도내 각 종단스님과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기관장, 신도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정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어린이를 돕기위해 예술대축제를 마련했다"며 "불교음악의 발전은 물론 도민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대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인기가수 정수라, 방실이, 이태원을 비롯 심진스님, 자범스님등이 공연을 펼쳤다.

선암사스님 15명 장기기증

대중·선원스님도 동참할 예정

태고종 선암사(주지 정지허) 강원의 학인스님 15명은 지난 20일 총무원을 찾아 장기기증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교무부에 생명공양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미 12명, 사미니 3명은 사후 안구기증, 뇌사시 장기기증, 사후 시신기증 등에 서명을 했으며, 15명의 스님외에 선암사 대중과 선원의 스님들도 장기기증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히고 있다. 장기기증에 참여한 한 스님은 "처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수행자의 입장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의외로 선암사 전대중이 동참하기로 해 더욱 기쁘다"고 말하고 인간방생운동의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관이 기자 집단폭행
불기협 진상규명 촉구

한국불교신문 신원식기자가 지난달 22일 노원구 불암파출소에 끌려가 경찰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1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신기자에 따르면 22일 저녁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중 친구가 쓰러져 찰과상을 입어 일으켜 세우는데 이를 지켜본 중학생이 파출소에 신고해 경찰이 연행해 갔다는 것이다.

경찰은 신기자에게 폭력에 대한 진술서를 강요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갑을 뒤로 채우고 경찰 4~5명이 집단구타했다는 것.

신기자는 턱뼈가 부서지고 온몸이 멍이들어 상계동 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가료중이다.

한편 태고종 이규범행정원장과 행정부장등 종단간부스님들은 25일 불암파출소를 방문해 경찰의 집단구타에 항의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불교TV 9일 이사회
수권자본확대 심의

불교TV는 오는 9일 오전 11시 신라호텔 파인룸에서 이사회를 갖고 수권자본을 늘이기 위한 심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수권자본 늘이기에 따른 정관수정 내용과 94년 결산 승인, 2차 불자주식청약 계획을 위한 주주총회소집 승인도 함께 할 예정이다.

95학년도 신입생 모집
법사원 불교대학

법사원 불교대학(학장 묵정배)에서는 9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불교과와 법사원 2개과를 모집하는 법사원 불교대학의 접수는 오는 20일 까지이다.

(02)266-1827

통일음악제 백두산 등정추진

전불련 사업확정 '불교미래가치연구소' 신설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 이하 전불련)은 지난 21일 전불련 법당에서 제2기 4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95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실천승가회 청년여래회 대밀청 등 9개단체 12명이 참석한 이날 운영위에서는 열린조직으로 불교운동의 연대확장, 통일시대와 지역시대 준비 등을 사업목표로 기획·연대·특별사업등을 다양하게 펼칠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사업으로는 통일음악제(7월1일), 남북불자 백두산 등정(8월15일)추진, 기관지 '중도' 발간(2월초)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 대의원총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 위원체제를 불교발전위원회 통일운동위원회 사회운동위원회의 3개조직으로 통합 축소하고 정책,종책,교육,수행등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정책기획실을 신설했다.

특별사업으로는 한국불교미래가치연구소를 설립 불교운동이 자기내용성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종교교육실시 빠를수록 좋아"

불국사 연수참가 초중고 교사 설문 결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학교내의 종교교육에 대한 시각과 신앙행태를 살필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설문조사는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불국사에서 열린 「불국사 교사 연수회」에 참석한 전국각지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24명의 5개 주제, 30개 항목의 설문지 작성을 통해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앙경력은 1~5년이 47%, 6~10년이 8%, 11~15년이 5%, 16년 이상이 8%, 초심자가 32%. △입문동기는 교리의 이해, 타인의 권유, 정신적 안정추구, 종교에의 열망 순. △종교교육 실시 시기로는 유치원 36%, 국민학교 32%, 중학교 23%가 적당하다고 해 빠를 수록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 △교과과정을 통해 종교를 학생들의 지도에 응용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72%가 "있다"고 답해, 학교에서의 간접적 종교교육이 포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깨달음의 사회화 성금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2천만원
▲조계종 총무원 임직원 2백50만원
▲동작구 달마사 1십만원
▲고양 광덕사 5만원
▲조계사 8백3십6만5천850원
▲서대문 육천암 3십만원
▲불교신문사 3십만원
▲강서구 미타사 2백만원
▲대구 동화사 2백만원
▲구룡사 1천2백8십1만5천원
▲화계사 1십8만2백10원
▲속초 보광사 3십8만7천7백60원
▲영화사 2백만원

*성금모금계좌번호
농협 053-01-22778(불교중앙교원)
국민은행 023-01-0533-563(불교중앙교원)

〈1월 24일 현재〉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아직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금강경을 작품가치로만 보고 계십니까?

금강경(후면 연화도진품) 10폭 병풍



▶ 전면 (감색궁단에 金書)

▲후면(진풍연화도)
※ 참조 : 후면에 석가세존일대기(팔상록)을 원하시면 꾸며 드립니다.

■ 특 징 **전면** 원력높은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영인본 金書로 조성하였습니다.
후면 국전작가 재가불자 화백의 연화도 진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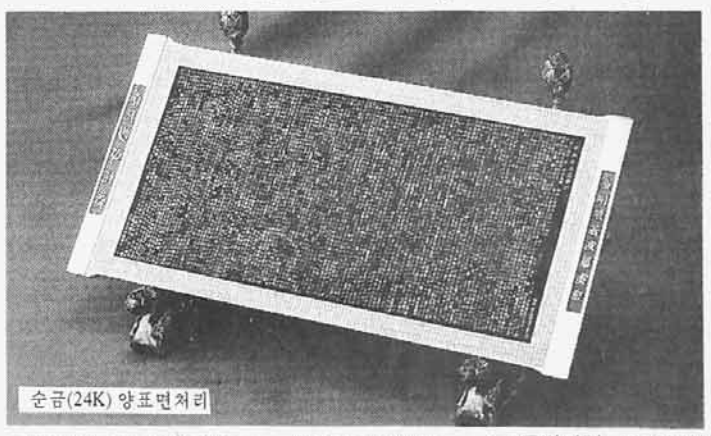
■ 규 격 · 높이 : 5자 8치 (175.8cm)
· 폭 : 14자 5치 (439.5cm
· 재질 : 스기목, 양면비단, 스모사 특후지

■ 포교가격 ₩ 490,000

금강석같은 금강경 병풍을 설명절 특별가격으로 한정수량을 보급합니다.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는 성품
살아있는 호신경전

秘經 천불 금강경



· 경판규격 : 505 × 255 × 8 (m/m) · 재질 : 주석(99.9%) ■ 특별가격 ₩ 480,000
경판테두리에 단을 쌓아 전불을 조성하여 공덕을 기리고 가운데에 금강경을 앙각으로 입체 사경하여 원력을 담게 하였습니다.

(글로버써비스)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글로버써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기획 제작 三田佛事 (조계사 후문)
■문의처 : (02)732-6095~6

불교전통표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



이 뭐 꼬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일체의 생각 멈추고 들어갈 곳은…

항상 자신과의 고독한 투쟁을 해야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그리하듯이 난 나의 작업실에서 홀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유독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어찌보면 그림 그리는 일을 핑계삼아 일상의 모든 것들과 벗어져 혼자 있을 수 있는 작업실에서의 시간과 공간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진정으로 혼자 있다는 것은 혼자 있음으로 절대 자유로움에 이르는 것을 말함 것이다. 절대 자유로움이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자재(自在)할 수있어야 함에도 혼자 있으면서도 무슨 번뇌망상은 그리 많은지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보니 혼자 있으면서도 혼자 있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 가 한다.

반공선사께서는 깨달음의 경지를 묻는 어느 제자의 물음에 기래식 곤락안(飢來食 困來眠)이라고 답하셨다. 배고프면 오로지 먹기만 할 뿐이고, 피곤하면 오로지 잠만을 잘 수 있는 것이 바로 카달음의 경지라는 것이다. 얼핏보면 매우 당연하고 범범한 말 같지만 이 이상 더 투철하고 철대적인 경지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를 참구 할 때는 오로지 나만을 참구 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때는 오로지 그림에만 몰두할 수 있는 자유가 절실이 필요해 진다.

잡념이 많다 보면 그리려고 하는 그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모든 예술이 다 그러하겠지만 그림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법칙은 도(道)에 그 근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만물을 생성하고 발전 시켜 나가는 모든 현상을 이 도(道)의 이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도(道)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일체의 생각을 멈추고 무념처(無念處)에 들어서는 무위(無爲)의 경지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시심마(是甚麼)?—이 뭐꼬? 이뭐꼬?

백년간의 연구가 일분 간의 무념처(無念處)에서 얻은 이것만 못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을해년 을해는 정말 혼자 있을 때는 일체를 다 떠나서 단 일 분이라도 오로지 혼자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부견 〈서양화가〉

믿음으로 찾은 행복 ②

주부신행담

단풍이 노랗게 물든 모습이 멀리 보이는 하늘 한구석 노을처럼 아름다웠다. 아침햇살에 비친 세상은 이제 막 풍랑을 헤치고 나온 어부의 안도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삼삼오오 무리지은 새들도 따스한 햇살을 시샘하듯 허공을 마음껏 비행하고 있었다.

"여보 뭐해! 빨리 나와 꾸물거리지 말고" 가버린 옷차림에 단정히 빗은 머리를 매만지며 남편이 채근했다. 휴일 아침 가까운 절을 찾기로 한 어젯밤의 약속을 남편은 잊지 않은 것이다. 그런 그가 고마웠다. 그리고 생각했다. 부처님의 가피가 이제 남편에게도 미치고 있음을.

철없는 짓을 한다며 계속해서 불법을 알려고 애쓰는 나를 멸시하던 남편이 어느날 아침 밥상을 마주한 채 나즈막히 물었다. "당신 부처님이 그렇게도 좋소? 나와 사는거요 아니면 부처님과 사는거요?" 진지한 물음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말끝이 낮은 것으로 보아 악의가 없음도 알았다.

"물 다예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또 당신을 사랑하게 하는 힘을 주는 부처님도 사랑해요. 그러니 어느 한쪽인들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부처님을 믿는 것은 아니예요. 난 당신을 부처님으로, 부처님을 당신으로 믿고 있을 뿐이예요."

남편은 차츰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건 남편이 느끼는 평안함이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자각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때문이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남편의 미소를 본 것은 이때부터였고 삶에 따스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우린 밤을 맞추며 인생의 황혼기에서나 볼 수 있는 완숙한 모습으로 절을 향했다. "왜 안들어오세요?" 법당 밖에서 머리를 긁적거리며 엉거주춤 서있는 남편의 모습이 우스웠다. "난 이곳 경치 구경이나 할래" 못내 쑥스러운 모양이었다. 하지만 재촉하지 않았다. 머지않아 남편 스스로 법당문을 열고 부처님 앞에 앉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 그리고 불교 그제서야 나는 이 두가지 명제가 하나임을 깨닫게 되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그대로 다 되는 것이 불교임을"



"나와 사는거요 부처님과 사는거요" 남편이 물었다

언젠가 '내 남편을 부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달라'는 서원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부처님께 그토록 서원했던 대상인 내 남편이 바로 내가 찾던 부처님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을때 난 부처님의 법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남편은 나를 수행시켰고 나를 제찍질해준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후원을 받기 시작한 나는 진정한 불법삼매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불법속엔 광은함과 아름다움의 진리가 있었다. 여러 스님들의 법문 테이프를 돌나는 대로 구해 귀를 기울이던 어느날 한가로이 구산스님의 법문 테이프를 듣던 나는 가눌 수 없는 희열속에 빠져 들었다. 구산스님의 얼굴은 물론 구산스님의 이력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나는 구산스님이 김제에서 한때 이발사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고향도 나와 같았고 더구나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불법을 접하면서 미용일에 관계하는 지금의 나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일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때 나는 '열심히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을 닦으면 나도 구산스님과 같은 경지에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구산스님의 법문집을 구하게 된 것도, 법문을 통해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도 모두가 전생의 인연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전생의 인연, 이 자체가 내겐 하나의 커다란 깨달음이었다.

나는 전보다 더욱 빈번히 여러 곳의 사찰을 찾아 다니며 스님들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때로는 선방에서 조용히 수도하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했다. 불법에 대한 용맹정진은 이미 내 모습을 조금씩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 희망이었고 수행이었다. 삶의 의미는 커녕 내 자신의 중심조차도 잡지 못하고 살았던 지금까지의 세월이 부끄럽기만 했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내 남편 불법에 귀의하게 해달라'며 나름대로는 불법을 따르고 있다고 믿었던 지난 날을 되돌아 보았다. 그렇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나는 늘 불법에 대해 의심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부처님을 따르면서도 '이 길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인가?'라는 자문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던 터였다.

믿음, 그리고 불교. 그제서야 나는 이 두가지 명제가 하나임을 깨닫게 되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그대로 다 되는 것이 불교임을!

이희자 〈서울 종로구 홍지문〉

영어로 배우는 경전 ⑦ 선생경

'Of these the first is to be reckoned as a foe in the likeness of a friend on four grounds. He is rapacious, he gives little and expects much, he does what he has to do out of fear, he pursues his own interests.'

이 가운데 첫번째는 네가지 이유에서 친구를 가장한 적으로 생각된다. 그는 탐욕스러우며 조금 주고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On four grounds the man who pays lip-service only to a friend is to be reckoned as a foe in the likeness of a friend. He makes friendly professions as regards the past. He makes friendly professions as regards the future. The only service he renders is by his empty sayings. When the opportunity for service arises he shows his unreliability.'

네가지 이유에서 친구에게 입에 발린 말만 하는 사람은 친구를 가장한 적으로 생각된다. 그는 과거에 대해 좋게 말한다. 그는 미래에 대해 좋게 말한다. 그가 제공하는 것이라고는 공허한 말밖에 없다. 정말 도와야 할 일이 생길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임을 드러내 보인다.

'On four grounds the flatterer is to be reckoned as a foe in the likeness of a friend. He approves your bad deeds as well as your good deeds. He praises you to your face, and in your absence he speaks ill of you.'

네가지 이유에서 아첨꾼은 적을 가장한 친구로 생각된다. 그는 그대의 선행 뿐만 아니라 악행도 찬성한다. 그는 면전에서는 그대를 칭찬하지만 그대가 없는 자리에서는 험담을 한다.

'profession' 전문직, 언명, 신언.
'render' ~을 갚다, 제공하다.
'unreliability' 신뢰할 수 없음, 이행치 못함.
'speak ill of' 나쁘게 말하다, ~의 험담을 하다.

〈박미영기자〉

